

開途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의 理論的 說明力 比較 研究

崔 宗 洙

A Comparative Study of FDI Theories by Developing Countries

Choi, Jong-soo

〈目 次〉

- | | |
|--|---|
| I. 問題의 提起 | 5. 既存理論을 開途國 直接投資理
論으로 修正한 기디와 영 (I.H.
Giddy & S. Young)의 主張 |
| II.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의
課題 및 分類 | IV. 巨視的-經濟學的 接近理論 |
| 1.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의
課題 및 分析視角 | 1. 고지마(小島 清)의 巨視經濟學
의 接近理論 |
| 2.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理論에
대한 體系的 分類 | 2. 오자와(T. Ozawa)의 巨視要因
- 微視要因(macro factor vs.
micro factor) 모델 |
| III. 微視的-企業經營學的 接近理論 | V. 結 言 |
| 1. 웰스(L. T. Wells)의 順位理論
(pecking-order theory) | 1.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의
綜合的 評價 |
| 2. 製品壽命週期理論의 接近(PLC
theory) | 2. 새로운 統合的 理論의 必要性和
展望 |
| 3. 寡占的 競爭理論의 擴張 | |
| 4. 더닝(J. H. Dunning)의 折衷
理論과 投資發展段階說 | |

Abstract

This study is made up as the 3rd one of a series concerning the theor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and aims to make a comparative research into the specific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respective theories for explaining FDI by developing countries

It is one of universal principles of traditional economics that capital is transferred from capital-abundant nations to capital-scarce nations. But many enterprises of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lacking in capital are carrying on their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both in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 even in already developed countries in spite of keen competition with worldwide multinational enterprises(MNE).

Usually the MNEs of advanced countries have monopolistic and/or oligopolistic comparative advantages, while the firms of developing countries don't have, yet the annual rate of FDI by developing countries is increasing faster than that of advanced countries. What are the main factors which account for these phenomena?

Various theories of FDI by developing countries are evaluated in points of substantial advantages, reasons for taking the way of FDI types, locations of investment, realistic behavior of business, and normative aspects of FDI. Such evaluations are backed up by two main approaching analysis of micro business administrative analysis and macro economic analysis. Micro theories including the Product Life Cycle(PLC) theory are more persuasive in explaining determinants of FDI, while macro theories like Kojima theory are more appropriate in explaining economic normative aspects.

It is, therefore, indispensable for us to extract new synthetic theorems which are formed by micro theories based on macro ones, or by macro theories containing micro ones therein.

I. 問題의 提起

이 研究는 海外直接投資(foreign direct investment:FDI) 理論에 관한 一聯의 論文中 세번째의 것으로서 아래 二篇의 後續篇에 해당된다.

1) 海外直接投資理論의 體系의 分類試論, 貿易研究會誌, 1987.

2) 折衷理論의 背景과 說明限界에 관한 考察, 韓國海洋大學 論文集, 1988.

獨寡的의 競爭力을 保有하지 못한 開途國의 企業이 外國費用의 發生이라는 不利함에 도 불구하고 對先進國 巨大多國籍企業(multinational enterprises:MNE)과의 競爭과 對受容國(home countries) 現地企業과의 競爭을 극복할 수 있는 源泉은 무엇인가? 開途國 企業에 의한 海外直接投資理論이 무엇을 說明할 수 있어야 理論으로서 成立하는가? 理論的 課題를 說明하는 데는 어떠한 接近方法이 있으며 方法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理論이 있는가? 各 理論의 說明力을 相互 對比시켜보면 어떠한 評價가 가능한가? 완벽한 唯一의 理論이 아직 提示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의문점에 問題意識을 갖고 文獻的 方法으로 이 研究가 이루어졌다.

II.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의 課題 및 分類

1.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의 理論的 課題 및 分析視角

이 節에서는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理論에 관한 體系의 分類 및 分析에 앞서 주로 西歐型的 海外直接投資를 說明하기 위한 既存理論에 대한 研究를 중심으로 海外直接投資理論이 해명해야 할 理論的 課題가 무엇인가를 分析키로 한다. 그 다음 이를 기초로 開發途上國의 海外直接投資理論이 어떤 문제를 解明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하는 理論的 課題를 구체적으로 設定하고 지금까지의 開發途上國에 관한 모든 海外直接投資理論을 이 課題의 基準下에서 어떤 部門은 충분히 說明되며 다른 부문은 그렇지 못한지를 評價하려고 한다. 이러한 研究는 지금까지 國內外的 대부분의 研究가 海外直接投資理論에 관한 내용의 簡

略한 紹介 내지 說明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開發途上國의 海外直接投資理論에 대한 종합적 評價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海外直接投資理論의 理論的 과제에 대한 분석의 대표적인 것으로 루트(F. R. Root)의 견해를 들 수 있는데 그는 海外直接投資理論이 설명해야 할 요건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 基本的 問題(fundamental question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

① 왜 企業은 해외로 進出하는가? (海外進出의 動機)

② 現地國 企業에 비하여 여러가지로 條件이 不利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과 成功的으로 競爭할 수 있는가? (競爭優位の 源泉)

③ 企業들이 海外에서 輸出 또는 라이선싱의 方法을 채택하지 않고 왜 直接生産活動의 形態를 선택하는가? (海外直接投資의 選擇 理由)

이들 문제 이외에도 그는 海外直接投資理論이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설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① 왜 獨占的 大企業이 海外直接投資를 支配的으로 하고 있는가?

② 왜 海外直接投資가 産業에 따라 많이 發生하거나 혹은 거의 發生하지 않는가?

③ 왜 國家 및 産業分野에서 逆投資(reverse investment)가 발생하는가?

이러한 루트의 見解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海外直接投資理論의 理論的 課題 및 要件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表 II - 1)과 같이 要約된다.

(表 II - 1) 海外直接投資理論의 理論的 課題設定 概觀

研 究 者	理論的 課題 및 要件
R. Z. Aliver (1970)	1) 投資對象國 企業에 대한 不利點을 補償할 수 있는 優位の 源泉 2) 大戰後 직접투자의 대부분이 미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이유 3) 직접투자 패턴의 産業別 差異 이유 및 기존 외국기업의 買入 (purchase of established companies abroad)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유 4) 相互投資의 이유

1) F. R. Root,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5th ed., Cincinnati, Ohio, Southwestern Pub. Co., 1984, p. 455.

<p>T. N. Gladwin & I. H. Giddy (197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企業國際化의 이유와 환경조건 2) 해외직접투자형태를 선택하는 이유 3) 不利性을 극복할 수 있는 진출기업의 우위성 4) 少數의 국가들만이 투자국이 되는 이유 5) 少數産業에서만 일어나는 이유 6) 相互投資의 이유
<p>F. R. Root (1978, 198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진출동기 2) 경쟁우위의 원천 3) 해외직접투자 선택 이유 4) 寡占的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유 5) 산업별 차이의 이유 6) 逆投資의 이유 7) 특정국가들에 의해 집중되는 이유
<p>J. H. Dunning (198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優位性의 源泉(企業特有의 우위 요소) 2) 해외직접투자의 선택 이유 3) 海外産業立地의 선정
<p>原 正行 (198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출기업의 우위성의 원천과 구성요소 2) 라이선스의 供與와 해외직접투자와의 선택을 규정하는 조건 3) 買收 혹은 合併형태를 통하여 진출하는 이유 4) 반드시 資本豐富國에서 稀少國으로만 移轉되지 않는 이유 5) 자본 및 실물자원의 移轉이 없는 직접투자의 설명 6) 規範的 문제에 대한 설명력
<p>池本 清 (1981, 198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떠한 국제경제 체제하에서 어떠한 論據로 이루어지는가 2) 어느 나라, 어느 업종, 어느 기업이 이를 행하는가 3) 어느 나라, 어느 분야로 행해지는가 4) 언제 행해지는가 5) 어떠한 이유로 행해지며 그 이유는 어떻게 변하는가 6) 왜 수출, 라이선싱, 경영계약이 아닌 直接投資의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7) 直接投資가 投資國과 受容國에 미치는 微視的·巨視的 影響은 어떠한가

資料：盧宅煥, 多國籍企業의 海外直接投資理論에 관한 研究, 慶北大 博士學位論文, 1987, p.14.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내용은 거의 같은 바 綜合的으로 要約하면 海外直接投資理論이 解明해야될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왜 또는 어떤 條件下에서 企業들은 直接投資를 통한 國際化를 행하는가 하는 海外直接投資의 決定因 (기업의 國際化 要因, 多國籍企業의 生成因)을 규명함과 동시에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海外直接投資의 현실적 行態와 特性(actual behavior and characteristics)을 설명해야 된다는 海外直接投資理論의 實證的(positive) 측면이다.

둘째, 海外直接投資가 世界經濟나 當事國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의 문제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또 정확히 반영해 주느냐 하는 海外直接投資理論의 規範的(normative) 측면이다.

따라서 어떤 理論이 이 두가지 문제를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면 그 理論은 海外直接投資의 一般理論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海外直接投資의 決定因 및 현실적 行態를 설명함과 아울러 경제적 영향과 같은 규범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單一의 보편적인 理論은 아직 出現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어떠한 理論이든지 그 理論이 가지는 기본적인 분석의 시각과 實質的으로 강조하는 측면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理論은 나름대로의 有用성과 限界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理論들은 代替的이기 보다는 相互補完的이다. 따라서 어떤 理論이 왜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가 하는 視角보다는 어느 理論이 어떤 부분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시각에서 海外直接投資理論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海外直接投資理論의 理論的 과제 및 분석시각에 대해서 기존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그렇다면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의 理論的 課題 및 分析視角은 어떠한가 하는가?

첫째, 開途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의 分析視角 역시 特定の 理論이 모든 것을 왜 설명하지 못하는가 하는 視角보다는 理論間的 相互補完的 視角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선진국의 海外直接投資에 비할 때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 현상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따라서 研究의 역사가 日淺한 관계로, 理論의 構築이 곧 現實의 追認이라면 현재로서는 일반이론의 완성이 때 이르기 때문이다.

둘째,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理論도 역시 海外直接投資의 決定因과 現實的 行態 및 경제적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開途國에 의한 海外直接投資는 先進國 企業의 전통적 海外直接投資와는 다른 특성과 환경의 產物이기 때문에 理論을 分析함에 있어서도 이에 기인하는 특수성을 修正 또는 補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開途國

의 海外直接投資理論이 해명해야 할 理論的 課題 내지 이들이 갖추어야 할 理論的 要件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海外直接投資의 決定因 및 현실적 行態(海外直接投資理論의 實證的 측면)

① 진출기업의 실질적 優位性(why의 문제)

海外直接投資理論이 해명해야 할 첫째의 과제는 해외진출 企業이 가져야 할 實質的 優位의 문제이다. 진출기업의 해외기업활동은 現地國의 競爭企業들에 비하여, 언어·제도·법률·정치·문화 등과 같은 企業환경의 相異, 現地國 市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 投資母企業과 時間的·空間的으로 동떨어진 지역에서 활동함에 따르는 非效率性, 現地國의 내셔널리즘에 의한 差別待遇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不利함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여러가지의 불리함 속에서도 어떻게 현지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또는 그러한 여러가지의 外國費用(cost of foreignness)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극복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競爭에서의 優位를 가져다 줄 수 있는 進出企業의 實質的 優位性의 源泉(source of real advantage)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理論的 해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실로 海外直接投資理論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건인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研究의 理論的 出發點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는 실질적인 우위가 무엇인가를 理論的으로 다룬 것이 產業組織論的 接近의 獨占優位理論인 바 그 대표적인 학자는 하이머(S. Hymer), 킨들버거(C. P. Kindleberger), 케이브스(R. E. Caves) 등이다. 그렇다면 왜 企業이 海外直接投資를 하는가(why의 문제)의 경우, 開途國의 企業은 선진국기업들과는 별도로 어떤 企業特有的의 독점적 우위를 保有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Hymer-Kindleberger-Caves 모델에 의하면 결국 海外直接投資는 差別化 된 제품을 생산하는 巨大한 寡占의 企業에 의해 수행되어 질 수 있다. 이에 反해 開途國 企業의 경우는 標準化되고 技術集約度가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中小規模企業에 의한 海外直接投資가 많다. 그러므로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理論은 이런 企業들이 受容國企業 뿐만 아니라 受容國內에서 競爭하는 多國籍企業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比較優位要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한다.

② 海外直接投資의 선택 이유(how의 문제)

이같이 해외진출기업이 어떤 실질적 우위를 占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국적기업의 生成因에 대한 理論的 研究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분명히 하나의 중요한 必要條件은 되

지만 이것이 그대로 充分條件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해외진출기업이 그러한 어떤 우위를 가졌다는 것은 現地企業들과의 競爭에서 이길 수 있는 원인은 설명할 수 있으나, 왜 生産의 프로세스가 海外에서 이루어지느냐, 즉 해외진출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위를 통하여 本國에서 생산하여 現地國에 수출하거나 현지국의 생산자에게 라이선싱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受容國에서 直接 生産活動 내지는 直接投資의 방법을 택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海外直接投資理論이 해명해야 할 두번째의 과제는 企業 國際化의 세가지 方法 즉 輸出, 라이선싱, 海外直接投資方法 中 왜 수출이나 라이선싱이 아닌 해외직접생산을 통해 優位를 추구하느냐에 대한 해명이다.

③ 海外生産立地の 선택(where의 문제)

다국적기업의 海外直接投資理論이 해명하여야 할 세번째의 문제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생산이 이루어지는 受容國은 어디이며 이는 또한 어떠한 要因에 의해 결정되는가 하는 海外生産立地の 選擇 문제이다. 이같은 對象地域(when)이라는 문제의 해명을 위해서는 어떤 國家로 進出하는가 하는 문제와 어떤 產業에 진출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④ 現實의인 行態(behavior의 문제)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理論은 다음과 같은 海外直接投資의 現實의인 行態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를 흐름면에서 분류할 경우 開途國間의 直接投資뿐만 아니라 開途國企業에 의한 對先進國 投資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開途國 企業에 의한 對先進國 投資 즉 逆投資(reverse-order FDI)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왜 同種產業內에서 甲이라는 開途國의 特定企業이 해외에 투자하는 同時에 다른 開途國 企業이 그 甲國에 투자하는 등의 相互投資(two-way flow cross investment)가 이루어지는가?

셋째, 開途國의 투자기업들은 선진국 투자기업들에 비해 合作投資를 選好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선진국의 海外直接投資가 여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開途國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인근 開途國間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開途國에서 선진국으로의 逆投資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첫번째 문제이다. 왜냐하면 開途國 海外直接投資의 흐름의 측면에서 볼 때 開途國間의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開途國의 對先進國投資도 增大하고 있고 이들 투자는 開途國間의 투자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開途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은 先發開途國에서 後發開途國으로의 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開途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의 현실적 형태의 說明力 면에서의 평가는 주로 이 문제를 잘 해명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2) 海外直接投資의 경제적 영향(海外直接投資理論의 規範的 측면)

오늘날 다국적기업은 世界經濟나 投資國 또는 受容國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海外直接投資理論은 直接投資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規範的 問題에 대한 理論的 根據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開途國 海外直接投資는 企業特有的 뚜렷한 優位要因이 없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海外直接投資의 경우는 規模의 成長(size growth)과 組織高度化(organizational sophistication)를 추구하려는 企業의 발전과정(evolutionary process)의 결과인 반면 開途國 海外直接投資의 경우는 政府의 支援, 資源의 安定的 確保의 必要性 등의 巨視的 影響이 크다. 즉 開途國 海外直接投資는 企業의 內部的 요인 보다는 외부적인 투자대상국 및 투자국 경제 자체의 巨視的 요인에 의해 촉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²⁾ 그리고 開途國은 투자대상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투자국으로서 산업 정책, 貿易政策, 資源의 安定的 確保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活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開途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은 이러한 거시적 요인이 企業의 실질적 優位에 미친 영향, 앞으로의 투자패턴, 投資가 受容國과 投資國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명에 有用해야 한다.

2.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理論에 대한 體系的 分類

開途國에 의한 海外直接投資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研究의 역사도 짧다. 따라서 이에 대한 理論的 研究는 미미한 형편이며 특히 國內文獻의 경우 단지 그 概要를 소개하는데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開途國 海外直接投資理

2)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國際化의 경우 鄭求鉉교수는 韓國의인 특수한 巨視的 變數가 많이 작용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鄭求鉉, 國際經營學, 法文社, 1987, pp. 489~505.

論을 체계적으로 分析·批判하기에 앞서 우선 諸理論에 대한 既存의 분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體系化하고자 한다.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現象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된 理論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분류를 시도한 대표적인 경우는 閔相基교수의 경우로 다음의 세가지 관점으로 크게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³⁾

첫째는 先進國의 海外直接投資現象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理論을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설명하려는 관점으로 던닝(J. H. Dunning)의 折衷理論을 이용한 웰스(L. R. Wells)類의 接近方法이다.

둘째는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現象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獨自의인 理論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고지마(小島清)와 오자와(T. Ozawa)를 대표로 하는 學說이다.

셋째는 기디와 영(I. H. Giddy & S. Young)처럼 선진국의 海外直接投資現象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理論을 수정하여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現象을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디와 영의 主張도 실제로는 첫번째 관점의 던닝의 折衷理論의 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⁴⁾

그러므로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理論을 두가지로 분류한 고지마의 분류에 따라 ① 先進國 多國籍企業을 설명하려는 傳統的 海外直接投資理論의 適用 내지 擴張과, ② 이와는 별도의 獨自의인 理論이 필요하다는 고지마와 오자와의 巨視的·經濟學的 接近理論의 두가지로 크게 분류하고자 한다.⁵⁾ 왜냐하면 閔교수 분류에서의 기디와 영의 주장도 결국 던닝의 折衷理論의 骨格內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굳이 달리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既存理論을 適用 내지 확장하려는 微視的·企業經營學的 접근이론과 독자적인 理論이 필요하다는 巨視的·經濟學的 접근이론의 차이는 前者가 企業自體能力의 자연스러운 이용방법이라는 微視的·企業內部的 要因으로 海外直接投資現象을 설명하는데 반해 後者는 거시적·경제학적·企業外部的 요인이 海外直接投資를 촉진시켰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기디와 영의 주장도 企業內部的 要因의 결과로 海外直接投資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굳이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분류에 의해 既存

3) 閔相基, 韓國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 韓國經營論, 한울, 1985, p. 673.

4) I. H. Giddy와 S. Young의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節을 참조.

5) 이러한 海外直接投資理論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K. Kojima, Macro Economic Versus International Business Approach to Direct Foreign Investment,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June, 1982.

理論을 정리하면 (表 II - 2)와 같이 要約된다.

(表 II - 2) 開途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의 體系的 分類

觀 點	理 論	主張學者	主 要 內 容
微視的·企 業經營學 的接近	順位理論 (pecking- order theory)	G. C. Hufbauer (1966) L. T. Wells, Jr. (1977)	기술과 生産費 隔差上的 優位로 自國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소규모 국가로 해외직접투 자 결정(先發開途國의 後發開途國에대한 해 외직접투자의 적용)
	製品壽命週期 理論 (product life cycle theory)	R. Vernon (1966) D. J. Lecraw 赤松 要 & Shin Hishinuma (1984)	제품이 成熟하여 標準化됨에 따라 가격경쟁 이 치열해져 生産비가 낮은 後發개도국으로 生産立地가 移轉
	寡占的競爭理論 (oligopolistic reaction theory)	F. T. Knicker- bocker (1973)	해외시장에서의 寡占的 均衡여부가 곧 국내 시장에서의 死活을 의미하기 때문에 同一地 域에 경쟁적으로 투자.
	投資發展段階說 (investment development cycle)	J. H. Dunning (1981)	특정기업에 내부화된 諸生産要素의 優位나 受容國의 立地的 要素의 優위에 의해 해외직 접투자가 결정된다는 折衷理論의 對開途國 擴張
	既存의 諸理 論을 修正한 이론	I. H. Giddy & S. Young (1981)	독점적 優위가 적은 中小規模의 기업도 기업 의 戰略이나 입지적 요소에 따라 해외직접투 자 가능.
巨視的·經 濟學的 接 近	巨視經濟的 접근이론	小島 清 (1971)	投資國의 정부지원, 受容國의 투자요인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이 해외직접투자 결정(日本 型 해외직접투자 모델로 제시).

巨視·微視 要因모델	T. Ozawa (1975)	국내부존요소의 부족, 資源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및 정부지원 등의 거시적 요인과 특 定産業의 競爭的 요인이라는 미시적 요인으 로 日本의 海外直接投資를 설명.
---------------	--------------------	--

다음 章에서는 각 理論의 특성을 분석한 후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理論이 해명해야 할 理論的 과제의 관점에서 이들을 평가하고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理論을 어떤 視角에서 統合·分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Ⅲ. 微視的－企業經營學的 接近理論

1. 웰스(L. T. Wells)의 順位理論

順位理論(pecking order theory)은 원래 험보어(G. Hufbauer)가 國家間的 技術隔差와 勞動費用의 차이를 근거로 國際貿易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理論을 웰스(L. T. Wells)가 海外直接投資理論으로 확장하여 응용한 理論이다.⁶⁾

험보어는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한 中進國의 수출제품이 先·後進國으로 共히 수출될 수 있는 이유는, 후진국에 대해서는 후진국의 模倣遲滯(imitation lag)로 인한 技術隔差上의 優位를, 선진국에 대해서는 勞動費 隔差上의 優位를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웰스는 이것을 先發開途國의 後發開途國에 대한 直接投資에 적용하고 있다. 즉 이 理論에 따르면 각국은 특정제품을 처음으로 生産하게 되는 時機에 따라서 그 順位가 정하여 질 수 있으며 현재 그 제품을 生産하고 있는 국가는 보다 낮은 순위의 국가로 수출 또는 海外直接投資하게 됨에 따라 선진국이 특정제품에 대한 최초의 海外直接投資를 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 先發開途國이 自國보다 더 下位順位에 있는 국가에 海外直接投資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順位理論은 技術의 可用性과 生産費의 差異에 그 理論的 근거를 두고 있는데,

6) 따라서 이론의 모형은 G. Hufbauer, *Synthetic Materials and Theory of Int'l Trade*, Cambridge Univ. Press, 1966, pp. 32~33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L. T. Wells, Jr.의 *The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Agmon, T. and Kindleberger, C. P. (eds.), *Multinationals from Small Countries*, Cambridge, MIT Press, 1977, pp. 145~147에도 引用되어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比較優位要素인 기술이 順位에 따라 이동하게 된다고 假定하고 있다. 順位에 따라 生産活動이 전개될 때에는 下位順位에 보다 적합하도록 생산기술 및 製品에 약간의 변화가 수반되게 된다. 예를 들어 製品이 泰國이나 印度에서 생산될 때에는 美國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所得水準에 製品을 적응시켜야 하므로 이 경우의 제품 및 생산기술은 상대적으로 低所得水準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泰國이나 印度의 企業들은 그들보다 所得水準과 順位가 더 낮은 국가의 시장에서 競爭的 優位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에서의 변화는 생산기술보다는 주로 제품 디자인 면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태국이나 인도의 企業들은 次順位國에 進出함에 있어 先進國企業보다 훨씬 有利한 투자조건을 제시하는 수가 많다. 즉 미국기업이 單獨投資나 多數持分을 주장할 경우에도 開途國의 기업들은 合作投資나 라이선싱 등을 과감히 행함으로써 수용국의 투자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일본의 企業들이 주로 제품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서 次順位の 국가들에 대한 適應能力을 提高시키는 것과는 달리 先發開發途上國들은 주로 생산 기술상의 변화를 통하여 下順位 국가에 대한 적응능력을 높이고 있다. 開發途上國企業들은 다른 開發途上國 시장에 보다 적합한 勞動集約的 小規模技術(small scale technology)을 개발함으로써 他 開發途上國 시장에 보다 적합한 기술(appropriate technology) 또는 보다 적합한 製品(appropriate product)을 가지고 競爭上 優位를 占하고 있기 때문이다.

開發途上國 企業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술적 특성의 하나는 同一한 生産設備로서도 製品生産工程이 보다 伸縮的으로 운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특성은 製品需要가 少量이면서 多樣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開發途上國 商品市場에서 開發途上國 企業들이 선진국 企業에 비해 높은 市場適應度를 갖게 하는 역할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같은 생산 기술의 변화 이외에도 先發開發途上國 企業들은 낮은 관리비용 등 生産要素費用上의 優位를 갖고 있으며 또한 선진국에서 開發途上國으로 移轉되는 機械設備보다는 開發途上國에서 他 開發途上國으로 이전되는 기계설비가 현지국의 要素費用 및 市場의 零細性에 보다 적합한 까닭에 이 점에서 또한 경쟁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理論은 動態的인 측면에서 輸出 및 海外直接投資가 어떻게 國家別로 移動하는가에 대하여는 잘 설명해 주고 있으나 順位가 낮은 開發途上國이 순위가 높은 선진국에 直接投資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限界를 가지고 있다. 또한 海外直接投資가 주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說明力이 약하다.

2. 製品壽命週期理論의 接近(product life cycle theory : PLC)

버논(R. Vernon) 교수는 國際貿易 및 投資의 발생을 比較優位論의 입장보다는 技術革新의 時間性(timing), 規模의 經濟의 효과, 不確實性 및 情報費支出의 효과 등을 강조하여 貿易 및 投資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⁷⁾ 즉 기술혁신으로 새로 개발된 상품은 新製品段階→成熟製品段階→標準化製品段階를 거치면서 신제품에 대한 國家間 技術隔差가 消滅되어가는 과정에서 무역 및 海外直接投資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1) 新製品段階

技術革新에 의한 新製品의 開發에는 두가지의 중요한 爭點이 제시된다. 하나는 技術革新이 어떤 國家(環境)에서 發生되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生産立地에 관한 문제이다. 첫째 문제에 대해 버논은 先進國間에 科學的 知識에 대한 접근기회나 이해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假定한다고 해도 이의 應用을 통한 市場性 있는 제품의 개발은 이들 제품에 대한 潛在市場과의 커뮤니케이션의 容易性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容易性은 地理的 近接性(geographical proximity)과 函數關係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市場과 가까이 있는 生産者가 그 市場環境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여타 시장에 있는 생산자 보다 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하면 미국의 경우는 所得水準 및 資金水準이 높기 때문에 미국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의 특성은 高所得製品 또는 勞動節約的 製品의 형태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지닌 제품에 대한 需要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데다 地理的 近接性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품을 개발할 機會 또한 미국기업들이 첫번째로 가질 수 있다.

한편 新製品段階에 있어서의 공장의 立地選擇은 生産費用의 最小化原理보다는 市場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外部經濟의 要因이 보다 重視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신제품단계의 특성에 기인한다.

첫째, 新製品生産段階에서는 原材料, 加工工程 등이 아직 標準化되어 있지 않아 投入費用에 대한 정확한 算出이 어렵다.

둘째, 신제품이 갖는 다른 제품에 대한 差別的 特性 즉 獨占的 競爭力으로 인해 新製

7) R. Vern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Life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66, p. 138.

品需要의 價格彈力性은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

세째, 신제품의 생산업자는 市場不確實性으로 인해 소비자, 원자재의 공급자 및 競爭企業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결실히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신제품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신제품 생산업자는 미국에서의 生産費用이 타국에 비해 보다 높다 하더라도 生産立地를 미국내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 신제품단계의 初期에는 제품의 生産·消費가 주로 미국시장에서만 발생되지만 신제품단계의 中期에 이르면 다른 先進國에서도 需要가 發生해 미국은 이때부터 輸出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技術隔差貿易(technological gap trade)이 발생된다.

2) 成熟製品段階

成熟製品段階에 들어서면 製品의 需要擴大와 더불어 상당한 정도의 技術上的 標準化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大量生産體制에 의한 規模의 經濟的 利益이 추구되며 各企業 製品間의 實質的인 製品差別化가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成熟製品에 대한 需要는 주로 미국에서 발생되지만 기타 선진국에서도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가 急增하기 시작하고 후진국에서도 漸增하기 시작한다.⁸⁾ 이에 따라 미국의 수출은 獨占의 우위를 바탕으로 極大化 되는데 이는 여타 선진국에서도 생산을 모방하여 국내생산이 진행되긴 하나 需要에 따르지 못해 미국으로부터 輸入하게 되고 後進國에서도 소비가 늘어나지만 生産은 成熟段階의 末期에 가서야 시작되어 거의 全量을 輸入에 依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投資의 위험이 감소되는 것과 아울러 여타 선진국에서는 輸入代替를 위한 自國企業 保護障壁을 높이는 조치가 병행되게 됨으로써 미국기업들은 現地生産(海外直接投資)을 고려하게 된다.

現地生産이 이루어지는 時期는 이론적으로는 限界生産費用(MC)과 수출에 따른 輸送費의 合計가 現地에서의 平均生産費用(AC)을 上廻하게 되면 일어날 것이나 現地生産費用은 現地適應能力에 따라 각 기업별로 相異하게 발생된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경쟁적 관계에 있는 生産立地間의 生産費用의 차이는 生産規模와 勞動費用의 差異에 의해서 주로 발생된다는 점이다. 특히 生産者가 多國籍企業이면 兩立地의 勞動費用의 隔差가 立地選擇의 主要決定要因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기업들은 성숙제품에 대한 수요

8) 이 같은 製品消費需要의 所得水準段階別 波及은 이들 제품이 갖는 高所得 彈力性과 高賃金코스트 代替性이란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가 충분히 커서 規模의 經濟의 실현이 가능하고 賃金水準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타 선진국에 海外直接投資形態로 진출하게 된다. 이 경우 兩立地間의 임금격차가 무역에 따른 輸送費用을 補填할 만큼 충분히 크게 되면 미국시장에 대한 逆輸出도 가능하게 된다.

3) 標準化製品段階

제품에 대한 標準化가 진행될수록 價格競爭이 더욱 치열해짐으로써 생산을 위한 立地로서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보다 開發途上國이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開發國은 일반적으로 下部構造(infrastructure)가 미비하기 때문에 모든 標準化된 제품에 대한 生産立地로서 開發途上國이 有利한 것은 아니고 특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제품인 경우에 立地の 優位性이 높아진다.⁹⁾

첫째, 勞動投入比重이 큰 生産函數를 가진 제품인 경우, 둘째, 需要의 價格彈性이 높은 제품인 경우, 셋째, 生産工程의 外部經濟依存도가 낮은 제품인 경우, 넷째, 輸出을 위한 輸送費가 占하는 비중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高價의 제품인 경우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선진국기업이 이같은 標準化된 제품의 生産立地로서 開發國을 택하게 되는 動機는 生産效率性追求를 통한 再輸出에 있다기 보다는 保護障壁을 회피하여 現地市場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기가 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⁰⁾ 어떤 제품이 표준화단계에 이르면 이 生産은 先進國에서는 斜陽化하기 시작하고 後進國에서는 輸入代替産業으로서 적극 육성단계에 들어가 보호장벽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버논은 技術進步의 過程에 따라 신제품의 壽命週期를 導入, 成長 및 成熟期로 각각 구분하고 각 단계에 있어서의 기업의 行動原理를 動態적으로 파악함으로써 海外直接投資를 규명하려고 하였으나 70년대 이후 子會社活動의 전세계적 擴散에 따른 營業網의 확대와 그동안 이 모델을 지탱하여 왔던 미국의 絕對優位라는 前提가 붕괴되는 등 제반 여건의 변화로 그의 理論은 미국과 여타 선진국간의 直接投資를 설명하는데 다소 설명력을 상실하였다.¹¹⁾

9) R. Vern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Life Cycle*, op. cit., p. 151.

10) 現地(開發國)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뒤 本國으로 再輸出하기 위한 투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투자의 경우에는 多國籍企業에 의해 垂直的 統合 生産體制가 구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1) R. Vernon, *The Product Life Cycle Hypothesis in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v., 1979, pp. 255-267.

기디(I. H. Giddy)는 제품수명이론은 이제 그 壽命이 다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¹²⁾

첫째, 全世界的인 視野에서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마케팅하는 다국적기업이 여러 나라에 출현함에 따라 一回用 면도기와 같은 신제품이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開發·販賣된다.

둘째, 加工食品과 같이 이미 오래 전에 成熟期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聲價(goodwill) 때문에 아직도 다국적기업의 생산 및 마케팅에서 主要部分을 차지하는 제품이 있다.

셋째, 資源産業에 대한 海外直接投資 현상을 거의 설명하지 못하며 또한 라이선싱보다 海外直接投資를 택하는 이유와 外國費用을 증가하는 독점적 우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다.

한편 製品壽命週期理論의 視角에서 개도국의 海外直接投資현상을 설명하려는 접근으로 赤松 要의 追跡製品週期理論(catching-up product cycle theory)과 레크로(D. Lecraw)의 修正製品週期理論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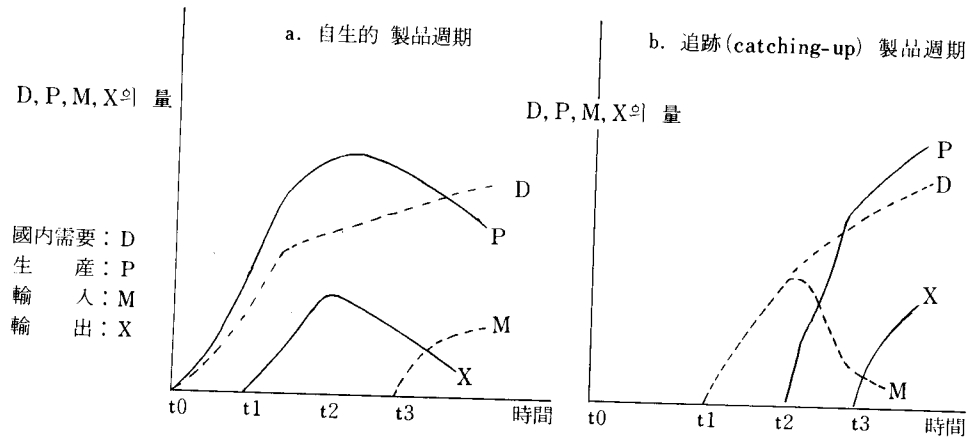
일본의 赤松 要교수는 30년대에 追跡製品週期理論(catching-up product cycle)의 모델을 提議한 바 있다.¹³⁾ 이러한 赤松 要교수의 모델을 버논(R. Vernon)등에 의한 본래의 모델과 對比시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버논 등의 自生的 製品週期(genuine product cycle)의 모델을 圖形化하면 다음의 (圖 III-1a)와 같다. 이 모델은 新製品이 개발되어 대규모생산이 이루어져 技術隔差에 의한 輸出이 이행되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러가지 與件의 變化로 결국 賃金隔差에 의한 輸入으로 이어진다는 革新國에 있어서의 國內生産·國內需要·輸出·輸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버논 등의 自生的 製品週期 모델은 그 관심이 革新國의 신제품에 대해 겨냥되고 있는 반면, 追跡製品週期모델의 관심은 技術革新國을 追跡하는 後發工業國의 標準化製品에 대한 國內生産과 需要 및 輸出과 輸入의 諸變化에 두어져 있는 바 이 모델은 (圖 3-1b)의 도형과 같다. 이 모델에서는 新製品에 대한 輸入이 먼저 시작되어 輸入량이 증가하고 國內需要가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國內生産이 시작된다.

12) I. H. Giddy, The Demise of the Product Life Cycle Model in International Business Theory,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Spring, 1978, pp. 90~97.

13) 赤松 要, 金廢貨と國際經濟, 東洋經濟新報社, 1974.

(圖 III - 1) 自生的 및 追跡製品週期



資料: 小島 清, 多國籍企業の直接投資, 1981, p. 259.
K. Kojima, Direct Foreign Investment, 1978, p.61, p. 65.

이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관세를 통한 경쟁의排除 또는 補助金이나 政府需要保證 등의 많은 保護·育成措置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가 지나서 외국의 우수한 기술적 노우하우와 外國人投資의 受容으로 외국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대규모생산을 통해 規模의 經濟를 實現하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며 生産費를 節減함으로써 輸入代替인 생산을 開始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國內生産費가 國際競爭이 가능한 수준에까지 引下 되면 輸入은 급속도로 減少되는 동시에 輸出을 통한 海外進出이 急增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輸入(M)－國內生産(P)－輸出(X)이라는 3개의 曲線이 마치 기러기(雁)가 날아 오르는 형태를 취하므로 雁行形態(the wild geese-flying pattern)라고 불리워진다.¹⁴⁾ 말하자면 이러한 雁行形態論은 新製品이 아닌 標準化製品에 있어서 先進國이 아닌 後發工業國이 輸入代替로 부터 시작하여 수출을 이행함으로써 先進國에 대한 追跡을 이룩하는 과정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雁行形態論은 최근에 이르러 새로운 분야로서 버논(R. Vernon)의 製品週期理論과 比較分析하는 경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석이 일본 또는 日本型 海外直接投資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 雁行形態論의 研究者中의 한 사람인 랫(W. V. Rapp)은

14) K. Kojima, Direct Foreign Investment : A Japanese Model of Multinational Business Corporations, London, Croom-Helm, 1978, p. 65.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⁵⁾ ① 廣大한 국내시장이 확보되면 생산을 개시하기 시작하며 생산량이 확대되면 費用遞減이 일어난다. 이때 국내시장이 飽和가 되면 수출이 시작되고 수출은 다시 생산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費用遞減을 加速化시키게 되어 결국 輸入→國內生産→輸出이라는 基本型이 성립된다. ② 일본은 외국제품을 일단 국내생산으로 代替하기 위하여 간단한 기술제작, 加工度가 낮은 제품, 노동집약적 제품부터 順次的으로 국내생산을 시작하여 輸入을 代替하고 따라서 점차로 생산을 多樣化한다. ③ 일본의 수출은 모든 시장을 一時에 攻略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인근 개발도상국 시장부터 착수하여 경험을 쌓은 다음 費用遞減과 品質向上을 통하여 遠距離의 先進國市場으로 향하는 戰略을 구사한다. ④ 賃金水準이 올라가게 되면 기술적으로 比較優位가 弱化되는, 예컨대 섬유산업 같은 業種부터 直接投資를 통하여 인근 低賃金의 開發途上國으로 진출한다.

히시누마(S. Hishinuma)도 이러한 아카마쓰(赤松)의 追跡製品壽命週期理論(catching-up product life cycle theory)과 버논(R. Vernon)의 이론을 統合하여 일본의 海外直接投資를 설명하고 있는데¹⁶⁾ 그 내용은 위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다. 만약 이와 같이 일본의 雁行形態의 산업발전과 順次的인 工業化가 追跡過程(catching-up process)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된다면, 일본보다 경제발전이 늦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적절한 雁行形態의 發展이 가능할 것이고¹⁷⁾ 따라서 先發開途國이 隣近의 後發開途國으로 海外直接投資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이론에 의하면 海外直接投資가 通常 追跡速度가 빠른 국가로부터 느린 국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海外直接投資가 兩國의 比較우위패턴에 맞도록 이루어지면 産業構造의 개선은 물론 貿易도 擴大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지마(小島清)는 이상의 설명에서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그가 지칭하는 日本型 海外直接投資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되면 ① 開發途上國에 적합한 산업이 順次的으로 移植되며, ② 선진투자국은 比較劣位化 勞動集約産業을 縮小하고 이를 개발도상국에서 輸入하여 産業構造를 調整할 수 있게 되며, ③ 投資國이나 受容國이 모두 비교생산비의 변동에 따른 産業構造의 高度화와 새로운 패턴의 무역을 창출하여 調和的으로 확대함으로써 南北貿易

15) W. V. Rapp, A Theory of Changing Trade Patterns under Economic Growth : Tested for Japan, Yale Economic Essay, Fall, 1967.

16) S. Hishinuma, A Model of Japanese Direct Foreign Investment, 産業經營研究, 日本經濟研究所, 1984.

17) 玉瞻鍾, 多國籍企業經營論, 法文社, 1982, p. 117.

을 再編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논술하고 있다.¹⁸⁾

이 이론은 先發開途國의 後發開途國에 대한 海外直接投資의 決定因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開途國의 産業發展過程에 있어 直接投資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기업이 가지는 比較優位의 源泉에 관한 分析이 未備하여 開途國으로 부터 對先進國으로의 逆投資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레크로(D. J. Lecraw)에 의해 주장된 修正製品壽命週期理論은¹⁹⁾ 버논의 이론에 근거하여 開途國 企業의 海外直接投資를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개도국은 管理的·企業家的 能力(skills)이 부족하며 또한 이런 企業特有的 資源은 개도국 기업들에 의해 집중되어 있어²⁰⁾ 價格競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流通經路도 統制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 기업수준의 研究·開發(R & D), 마케팅 및 관리능력은 없지만 小集團에 集中化시킴으로써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開途國 企業들이 갖게 된다는 것이다.²¹⁾

超過利益을 갖는 개도국 기업은 소규모 국내시장 때문에 同一業種에 대한 再投資는 企業利益을 減少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국내시장에서 多角的 統合을 誘導하는 것이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가지 방법이며, 다른 방법은 市場規模가 작고 所得水準이 낮은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방법이다.²²⁾

先發開途國으로부터 輸入하던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당해 국가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제품생산을 위한 專門知識(expertise)이나 자본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많은 개도국에서는 높은 保護障壁을 통하여 선발개도국에 비해 덜 效率적이거나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黑字性 生産의 可能性이 있다. 이때 既存市場에 대한 위협에 직면한 개도국 기업들은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海外에 直接投資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輸出을 現地 生産으로 代替하는 셈이 된다. 개도국 기업이 사용하는 기술은 本社國에서와 마찬가지로 研究·開發集約적이거나 마케팅지향적이 아닌 소규모 생산기술이 된다.

이 이론도 선발개도국에서 후발개도국으로의 直接投資의 決定因 및 現實的行態는 잘 설명하고 있으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서의 逆投資 現象이나 경제적 영향의 측면은 명

18) 小島清, 多國籍企業의 直接投資, 다이아몬드社, 1981, p. 263.

19) D. J. Lecraw, Internalization of Firms from LDCs: Evidence from the ASEAN Region, in Kumar, K. et al.,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pp. 37~51.

20) Ibid., p. 40.

21) 閔相訓,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1984, pp. 28~29.

22) D. J. Lecraw, Internalization of Firms from LDCs: Evidence from the ASEAN Region, op. cit., p. 41.

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限界를 갖고 있다.

3. 寡占의 競爭理論의 擴張

니커바커(F. Knickerbocker)는 어떤 產業에 있어서의 海外直接投資는 그 産業의 先導的 企業과 競爭企業 사이의 行動→反應(action-reaction)의 形을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寡占의 競爭理論(oligopolistic reaction theory)을 主張하였다. 海外直接投資 기업은 대개의 경우 소수의 支配의 企業으로 특징지워지는 産業에 속해 있는 大企業들이다. 이러한 寡占의 構造의 大企業들은 다른 기업의 競爭的인 움직임에 매우 敏感하며 따라서 그 意思決定은 先導企業의 의사결정을 비슷하게 바로 뒤쫓아가는 相互依存的인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²³⁾ 이렇듯 同種產業에 속하는 寡占의 企業間的 相互依存성은 寡占의 均衡維持와 寡占의 競爭의 本質이라고 할 수 있다.

寡占의 경쟁의 상태에 있는 産業에서 어떤 先導企業이 新製品을 開發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또는 새로운 原料產地를 확보하여 競爭上 優位를 確保하려고 하면, 追從企業은 先導企業의 새로운 行動(action)에 相應하는 反應(reaction)으로 이에 대처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先導企業이 競爭上 優位를 차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後發企業은 시장에서의 경쟁적 위치는 물론 심지어 成長의 機會마저 喪失하게 되는 危險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寡占의 企業間的 一次的인 목표는 利潤極大化라기 보다는 成長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 기업은 최소한 競爭企業과 같은 速度로 成長하기를 원하게 되며, 따라서 市場占有率을 위협하는 경쟁기업의 행위에 극도로 민감하게 대처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全體 市場의 規模가 擴大되어 企業의 絕對的인 利益 및 販賣量이 增加하는 경우에도 相對的인 市場占有率의 下落을 경계하게 된다. 즉 市場占有率의 安定을 통하여 寡占의 均衡을 유지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同種의 差別化된 제품을 X國에 수출하면서 서로 寡占의 均衡을 유지하고 있는 A와 B 두 기업이 있다고 假定하자, 이때 만일 A기업이 X國에서 現地生産키 위해 子會社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A企業의 先導的 행위는 B企業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 된다. 이는 첫째로, A기업의 X國內에서의 생산 및 마케팅 활동으로 인하여 B기업의 輸出 및 市場占有率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X國 政府가 國內市場을 보호하기 위하여 輸入制限措置를 취한다면 X國에 現地生産工場을 가지지 못한 B기업은 輸

23) F. T. Knickerbocker, Oligopolistic Rea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Harvard Business School, 1973, Chap. 3.

出市場을 모두 喪失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한 X國에 위치한 A기업의 子會社가 A기업의 全世界的 組織網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거나 寡占의 均衡을 깨뜨릴 수 있는 技術·製品·人力·知識 등을 획득하게 된다면 이는 B기업에게 더욱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B기업으로서는 당연히 A기업과 步調를 같이하여 같은 X國에 投資를 實施함으로써 A企業의 先導的 行爲에 대처하게 된다. 이 경우 B기업은 A기업의 투자에 對應하지 않는 경우보다 비용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危險極小化의 戰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예상수익이 낮은 경우일지라도 X國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寡占產業에 속하는 기업들의 이러한 과점적 경쟁행위는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국가에 과점산업 기업들이 集中的으로 投資하도록 作用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밴드왜건 効果 (band wagon effect)라고도 한다. 이 이론은 50년대와 60년대에 걸친 미국기업들의 對 유럽 集中投資를 매우 有力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은 他企業들로 하여금 과점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最初의 先導的 기업의 投資意思決定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그런데 이 寡占的 競爭理論을 日本의 海外投資에 적용시키려는 시도가 두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는데 첫째 방향은 일본의 寡占的 企業의 투자를 설명하려는 것이고, 두번째 방향은 과점적 기업이 아닌 競爭的 中小企業들의 開途國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두번째 방향은 이 이론의 要諦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나 投資의 防禦의 性格과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集團的 투자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寡占的 競爭理論의 擴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첫번째 방향에 의하면 60년대 초에 이미 일본의 輸出은 寡占的 構造를 갖는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한 기업이 海外直接投資를 할 경우 이는 기업의 國際化 段階中 輸出段階 (export stage)에서 이뤄지고 있던 既存의 產業內 均衡에 위협이 되었다. 따라서 다른 경쟁기업들도 해외투자를 통해 이에 대응하였는데 이러한 투자는 原資材나 部品の 輸出에 주된 目的이 있었다.²⁴⁾ 이러한 과점적 경쟁을 일으킨 先導的 企業의 初期投資는 주로 投資對象國의 輸入代替政策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²⁵⁾

24) M. Y. Yoshino, Japanese Multinational Enterprise, Cambridge, Mass., Harvard Univ., 1976, p. 67. 그 例로서 철강, 가정용기구, 합성섬유산업을 들고 있다.

25) Y. Tsurumi, R & D Factor and Exports of Manufactured Goods of Japan, Unpublished D. B. A. Thesis, Harvard Univ.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969, p. 88. 그 例로서 전자, 전기, 합성섬유산업에서의 大企業投資를 들고 있다.

두번째 방향의 확장에 의하면 이러한 밴드왜건효과(band wagon effect)는 日本의 경우 과점적 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競爭의 產業內에 있는 中小企業들의 투자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勞動集約도가 높은 이들 기업들은 賃金, 地代 등 國內生産費의 上昇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출경쟁에 직면하여 生産費를 節減할 수 있는 인근 개도국에 대해 集團的으로 防禦的 投資를 하였다는 점이다.

開途國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과점적 경쟁이론의 適用 내지 擴張도 위와 같은 두가지 방향에서 전개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분석한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첫번째 방향의 경우 鄭求鉉교수에 의하면 80년대의 우리나라 기업의 對先進國投資는 70년대의 對開途國 海外直接投資와는 여러가지의 다른 특성을 보였는데, 즉 電子産業 등 大規模 尖端産業은 굴지의 大企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²⁶⁾ 이처럼 국내의 대기업이 거의 동시에 대거 진출한 것은 첨단산업 특히 전자 및 半導體産業이 앞으로 기업그룹의 장래를 좌우하리라는 前提下에서 有利한 競爭的 位置를 먼저 확보하려는 戰略的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방향의 경우 신발산업과 같은 勞動集約的 産業이 東南亞國으로 集中投資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신발업계가 東南亞로 집중투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國內賃金水準이 그동안 크게 上昇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賃金水準의 30-50%에 지나지 않는 低賃金 地域으로 투자하여 價格競爭力을 높이며 선진국의 輸入規制障壁을 회피하기 위한 迂迴輸出戰略이 가능하고 생고무 등 原資材 確保가 容易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방향의 경우는 寡占的이 아닌 競爭的 中小企業의 對開途國 집중투자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원래의 寡占的 競爭理論의 要諦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것이며 첫번째 방향의 경우도 니커바커(F. T. Knickerbocker)의 寡占的 競爭理論의 觀點과는 다소 다르게 설명되어져야 한다. 니커바커는 大規模의 市場經濟體制를 실시하는 國家의 寡占産業을 염두에 두고 그의 이론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本國 市場에서의 寡占的 均衡과 해외시장에서의 寡占的 均衡을 別個의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本國 市場에서 寡占的 均衡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외시장에서 寡占的 경쟁을 하기 위하여 寡占的 기업들은 海外直接投資를 행하게 된다. 따라서 海外直接投資의 主目的은 해외시장에서의 寡占的 均衡의 維持이다.

26) 鄭求鉉, 國際經營學, 法文社, 1987, pp. 495~497.

그러나 小規模 國內市場을 배경으로 海外市場 依存的인 經濟構造에 基盤을 둔 寡占企業의 경우에는 해외시장에서의 企業活動 여하에 따라 국내시장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寡占的 競爭의 樣相을 니커바커의 理論體系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고 하겠다. 해외시장에서의 寡占企業間的 均衡維持 여부가 국내시장에서의 寡占的 均衡 내지 기업의 存廢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寡占的 競爭理論은 對外依存的 經濟構造를 갖춘 소규모 국가의 경우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에서의 寡占的 均衡의 維持가 각기 別個의 조건이 아니라 相互交換作用을 하고 있는 것으로 修正되거나 擴大解釋되어야 한다.

니커바커의 寡占的 競爭理論의 適用 내지 擴張의 경우는 開途國의 투자가 선진국 혹은 개도국에서 同一業種·同一地域으로 집중투자되는 것을 설명하는데는 有用하나 先導的 企業의 初期의 투자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며 經濟的 影響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못함에 限界가 있다고 하겠다.

4. 던닝(J. H. Dunning)의 折衷理論과 投資發展段階說

1) 折衷理論(eclectic theory)

던닝은 既存의 獨占的 優位理論과 內部化 理論에 生産立地理論을 結合하여 折衷理論을 개발하고²⁷⁾ 이를 통하여 貿易理論과 海外直接投資理論의 統合化를 모색하였다. 海外直接投資는 國際經營活動의 한 형태로서 輸出에 대한 理論과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理論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기업의 해외활동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兩理論을 企業側面에서 統合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기존의 海外直接投資理論들은 해외생산활동에 대하여 部分的으로 밖에 설명하지 못하며 수출, 라이선싱 또는 海外直接投資와의 關係가 體系化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折衷理論의 필요성을 力說하였다. 그는 어떤 기업의 海外直接投資는 그 기업이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 비하여 가지고 있는 企業特有的 優位要素(owner-specific advantages), 內部化 優位要素(internalization advantages) 및 生産立地上的 優位要素(location advantages)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그의 折衷理論을 전개하고 있다.²⁸⁾

27) J. H. Dunning, Explaining Chang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Production : In Defense of the Eclectic Theor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v. 1979, pp. 269~295.

28) J. H. Dunning, Toward o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 Some Empirical Tes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Summer 1980, pp. 10~12.

이 이론에 의하면 特定 국가의 기업의 해외투자는 다음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첫째, 기업이 特定市場에 進出하기 위해서는 他企業에 비해 所有權 特有的 優位를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소유권 특유의 優位는 대체로 無形資產으로 구성되며 기업은 이를 일정기간 自社에 特유하게 또는 排他的 形態로 보유해야 한다.²⁹⁾

둘째, 첫째 조건이 충족되면 이러한 優位들을 보유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우위들을 他企業에 판매하기 보다는 스스로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有利한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즉 所有權 特有的 優位들을 타기업에 라이선싱하거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外部化하는 것보다는 기업 자체의 活動領域을 擴大하여 이 優位들을 內部化하는 것이 보다 유리해야 한다.³⁰⁾

셋째, 첫째와 둘째 조건이 충족되려면 기업은 自國의 生産要素와의 結合보다 외국에 있는 자연자원 등의 生産要素와 기업이 보유한 독점적 優位를 결합하여 이용하는 것이, 즉 海外直接投資가, 수출보다 利益이 커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업은 수출에 의해서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또는 他企業(특히 현지기업)이 現地市場을 장악하게 된다.³¹⁾

위의 세 가지 條件에 대해서는 筆者의 他 論文에서 이미 詳術하였으므로³²⁾ 여기서는 說明을 略하기로 한다.

이상의 立地的 要件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의 크기, 成長의 潛在力 및 貿易과 海外投資 등에 관한 受容國 政府의 여러가지 政策 등이다.

따라서 기업의 主要 海外進出方法 中 어느 방법이 선택되는가는 다음의 (表 III - 1)로 설명할 수 있다.

29) J. H. Dunning,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Position of Countries : Towards a Dynamic on Development Approach, Weltwirtschaftliche Archiv, Vol. 117, 1981, p. 3.

30) Ibid., pp. 3~4.

31) Ibid., p. 4.

32) 拙文, 折衷理論의 背景과 說明限界에 관한 考察, 韓國海洋大學論文集, 1988, pp. 21~53.

(表 Ⅲ - 1) 企業 海外市場介入의 決定要素

優位要素 市場接近方法	企業特有的優位要素 (ownership advantages)	內部化優位要素 (internalization advantages)	立地特有優位要素 (foreign location advantages)
海外直接投資 (foreign direct investment)	○	○	○
輸出 (export)	○	○	×
라이선싱 등 契約方法 (contractual resource transfer)	○	×	×

資料 : J. H. Dunning, "Explaining Outward Direct Investment of Developing Countries : In Support of the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in K. Kumar and M. G. Mcleod(ed.),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1981, p. 4.

즉 所有權 우위는 기업이 수출, 라이선싱 또는 海外直接投資 중 어느 방법을 택하든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이다. 이때 內部化의 利點이 있게 되면 기업은 라이선싱 등의 계약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수출 또는 海外直接投資를 선택하게 된다.

특정의 국가에 대한 진출방법으로 수출과 海外直接投資 중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立地特有的 優位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국 所有權 特有的 要因을 立地特有的 要因과 結合하여 內部化한 행위를 海外直接投資로 보고 있으며 소유권 특유를 自國의 생산요소와 結合하여 내부화하는 행위를 輸出로 보고 있다.

한편 이들 우위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은 국가, 산업 및 企業別로 區分할 수 있는데 이들 우위들은 국가, 산업 및 기업특유의 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다. (表 Ⅲ - 2).³³⁾

33) J.H.Dunning,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Position of Countries*, op. cit., p.5.

(表 Ⅲ - 2) 海外直接投資의 條件이 國家·産業·企業特有的 事정에 따라 달라지는 例

	國家(投資國/受容國)	産 業	企 業
企業特有 優位要素	(1) 要素賦存 및 시장 의 규모와 특성 (2) 기술혁신, 기업의 재산 및 營業權, 경 쟁, 産業構造 등에 대 한 정부의 정책 (3) 외국기업에 의한 自國內 海外直接投 資에 대한 정부의 규제	(1) 제품 및 工程의 技 術集約度 (2) 기술혁신의 성질 (3) 製品差別化의 程度 (4) 生産上 규모의 경 제 (5) 投入要素 및 시장 의 有利한 접근이 생 산에 얼마나 중요한 가의 여부	(1) 규모, 生産의 範圍, 工程 또는 시장다변화 (2) 기업이 얼마나 革 新的인가 또는 市場指 向的인가, 또는 투입 요소 및 시장확보에 있어서 安定的인가 의 여부
內部化의 利益	(1) 國際企業으로 하여 금 거래를 內部化하도 록 誘導하는 정부의 정책과 간섭의 정도 (2) 企業合併에 대한 정부의 정책 (3) 去來費用, 계약의 이행, 구매내용의 의 구심 등 各國間의 市 場構造의 差異 (4) 受容國의 사회간접 자본, 技術水準 및 기 타의 자원이동을 흡수 할 수 있는 능력의 정 도	(1) 水平的 또는 垂直 的 統合이 얼마나 필 요하고 또 가능한가, 즉 投入要素나 시장을 統制할 필요성이 있는 가의 여부 (2) 內部化의 이익을 계약 또는 協定 등의 방 법으로 확보(보호)할 수 있는가의 여부	(1) 企業의 組織 및 統 制의 過程 (2) 성장 및 기업활동 多角化에 대한 태도 (3) 라이선싱, 프랜차 이징, 기술, 用役提 供 등에 대한 태도

立地的 要因	(1) 각국간의 경제적 및 사회·심리적인 거 리감 (2) 관세, 쿼타, 租稅 등의 정부의 간섭과 개입 (3) 換率	(1) 移動이 불가능한 資源의 分布 (2) 中間財 및 完製品 의 수송비용 (3) 關稅 및 비관세장 벽 (4) 산업특유의 企業間 競爭의 정도 (5) 産業活動의 여러기 능을 분리하여 遂行할 수 있는가의 여부 (6) 租稅流入, 총비용 중 勞動의 비중 등과 같은 立地的 變數의 중요성	(1) 해외시장진출에 대 한 經營戰略 (2) 海外活動의 경험과 연륜 (3) 제품의 壽命週期에 따른 기업의 위치 (4) 기업이 느끼는 文 化, 言語, 법률 및 경 제제도의 차이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5) 研究開發, 인력 및 시장배분 등의 기업활 동의 集中化에 대한 태도 (6) 資產의 地理的 분 포 및 위험 分散化에 대한 태도
-----------	---	--	--

2) 投資發展段階說(investment development cycle)

한편 所有權特有的 優位, 內部化 利點 및 立地特有的 優位들은 固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한 국가의 경제발전 관계와 海外直接投資 흐름간의 相關關係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한 나라의 海外直接投資額은 自國 企業이 所有權 特有的 優位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와 소유권 특유의 우위를 內部化하는 要因의 程度 및 海外生産의 利益率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들 세가지 우위들은 여러가지 요인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시간에 따라 달라짐으로써 純海外直接投資의 흐름과 經濟發展段階 및 經濟構造와 밀접한 관계가 맺어진다.

던닝은 지금까지 한 나라의 經濟發展段階와 純海外直接投資의 흐름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國際通貨基金(IMF) 자료를 주로 이용하여 1967년부터 1975년까지의 세계 각국의 海外直接投資 흐름을 분석하면서 1人當 國民總生産(GNP)과

純海外直接投資 흐름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³⁴⁾ 이것은 그의 折衷理論을 開途國企業에 擴張코자 시도된 것이다.

경제발전단계를 1인당 GNP에 따라 4 단계로 구분하고 純海外直接投資 형태를 (圖 3-2)와 같이 V型으로 파악하며 이런 관계를 (表 III-3)을 이용하여 折衷理論으로 설명하고 있다. 經濟發展에 의해 1인당 GNP가 증가함에 따라 (表 III-3)과 같이 所有權要因과 內部化要因 및 立地要因이 변하면서 (圖 III-2)에서와 같이 1인당 GNP가 400달러 이하인 經濟發展 1段階에서는 海外直接投資 및 外國人 直接投資가 거의 없으나 經濟發展 2段階(1인당 GNP가 400달러에서 約 1,500달러)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하되 海外直接投資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純海外直接投資의 흐름은 계속 負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經濟發展 3段階(1인당 GNP가 2,000달러에서 4,750달러)에서는 海外直接投資가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거나 또는 海外直接投資 增加率이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보다 앞서기 때문에 負의 純海外直接投資 흐름은 점차 둔화되다가 經濟發展 4段階(1인당 GNP가 5,000달러 이상)에 이르고부터는 海外直接投資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능가하고 正의 純海外直接投資현상이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鄧寧의 折衷理論은 두가지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기업이 수출, 라이선싱 및 海外直接投資 중에서 海外直接投資를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향이고, 둘째는, 折衷的 3角構造를 이용하여 한 나라의 경제발전단계와 해외직접투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投資發展段階說이다.

한편 이 이론은 海外直接投資理論 연구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현재까지의 제이론들을 포괄하는 가장 一般的인 理論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오늘날 절충이론을 비록 唯一한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有力한 理論임은 분명하며 또한 오늘날 海外直接投資理論의 연구는 대체로 이러한 방향으로 완결되어지는 것으로 파악하려 함이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折衷理論은 그후 많은 實證的 研究 등에 의해 뒷받침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鄧寧(1980) 자신의 연구를 비롯하여 多國籍 호텔산업에 대한 鄧寧과 맥퀸(M. McQueen : 1981)의 연구 및 다국적 경영관리 서어비스산업에 대한 鄧寧과 노르만(G. Norman : 198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34) Dunning은 1979년에 경제성장과 海外直接投資間의 상관관계를 세계 56個國의 1인당 GNP와 1963~75년 1인당 對外投資 平均 純殘高를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J. H. Dunning, Explaining Chang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Production. 1979. pp. 269~295.

(表 Ⅲ - 3) 投資發展段階와 對內外 直接投資의 優位 變遷關係

對內外直接投資 經濟發展段階	外國人直接投資	海外直接投資
1 段 階	Of 상당하다 I 상당하다 Ld 거의없다	Od 전혀없다 I 적용되지 않는다 Lf 적용되지 않는다
2 段 階	Of 상당하다 I 감 소 Ld 증 가	Od 거의없다 I 거의없다 Lf 나타나기 시작한다
3 段 階	Of 감소하고 보다 전문화 된다 I 증 가 Ld 감 소	Od 증 가 I 제한적이다 Lf 증 가
4 段 階	Of 감소하고 보다 전문화 된다 I 상당하다 Ld 감 소	Od 증 가 I 증 가 Lf 증 가

註: O: 所有權 優位 L: 立地優位 I: 內部化 利點
f: 外國 d: 國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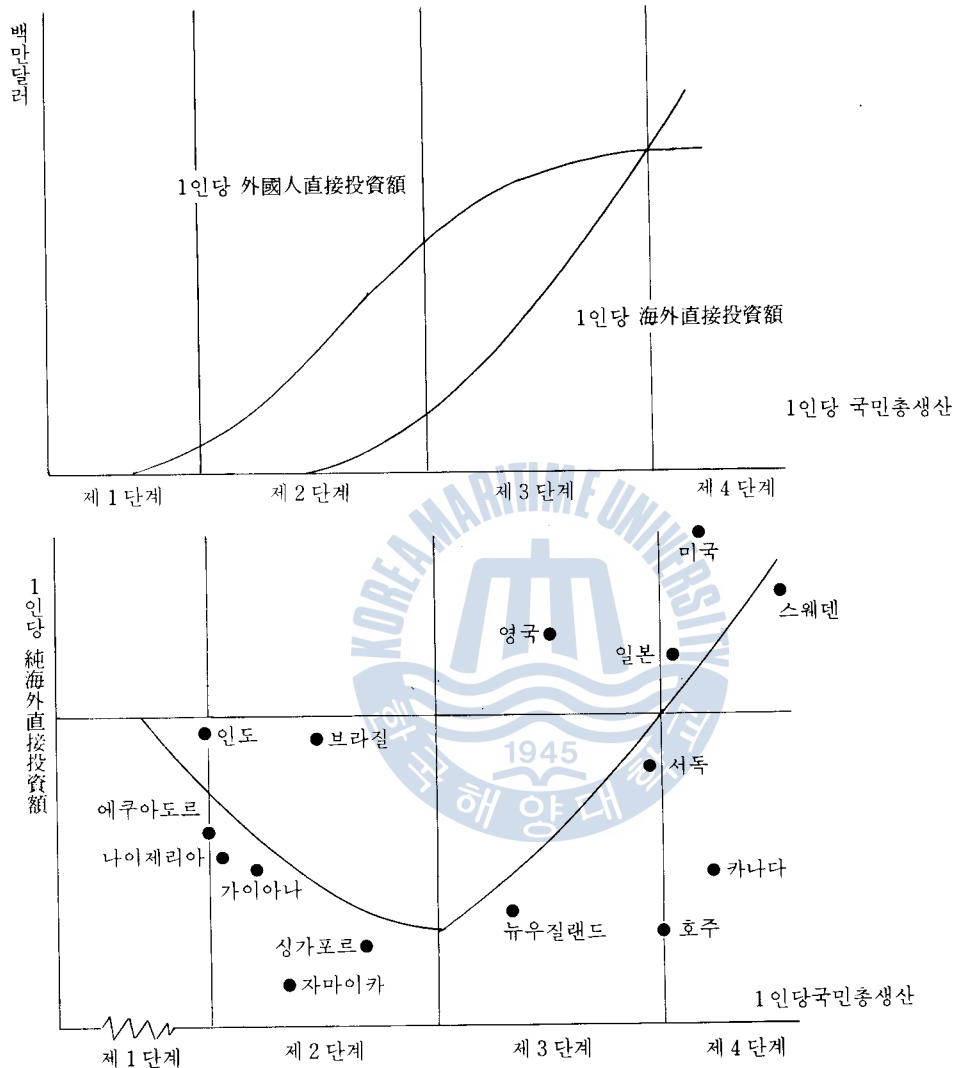
資料: J. H. Dunning,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George Allen & Uniwin, 1981, p. 117.

첫째로, 이 이론에 있어 特殊的(specific)이라는 의미가 모호하며 多義的이다.³⁵⁾ 여기서 企業特殊的 優位라는 것은 大企業이나 獨寡占企業의 優位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 기업이 海外投資方式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多國籍企業化한다면 市場內部化라고 하는 또 하나의 優位가 추가될 뿐이다. 또한 立地特殊的 要因이란 단순히 立地要因이라고 함으로써 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國家에 따라 立地要因이 相異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구태여 特殊的 要因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理論의 本質上 獨占的 優位論과 內部化理論에 加해진 同一한 批判들이 이 理論에도 적용된다. 이 이론에 있어 企業特殊的 優位란 대기업, 특히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제품을 差別化하는 독과점기업이 이러한 誘因을 많이 가지며 또한 內部化優位란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多國籍企業이 이러한 誘因을 가지므로 이 이론은 결과적으로 獨寡占的

35) 小島清, 多國籍企業의 直接投資, op. cit., p. 420

(圖 III-2) 投資發展段階



資料 : J. H. Dunning(1981), op. cit., p. 115.

대규모 多國籍企業의 여러 행위를 合理化하고 옹호하는 결론에 도달된다.

세째로, 이 이론은 이미 제시된 獨占優位論과 内部化理論에 立地特殊的 要因만을 추가한 것으로서 그다지 큰 獨創性이 엿보이지 않는 이론이다. 또한 이 이론은 이러한 諸優位要因間의 理論的 關係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 못하며³⁶⁾ 문자 그대로 折衷에 그치고

36) P. J. Buckley and M. Casson, *The Economic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 Selected Papers*, Macmillan, 1985, p. 18.

있다.

네째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 이론은 國際生產活動의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기업특수적·입지특수적 요인이 중요한가를 고려하여 많은 특수적 요인을 追加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批判들이 加해지고 있다.

① 이는 오늘날의 成長하는 다국적기업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다기 보다는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 우위요소들을 例示함에 그치고 있다.³⁷⁾

②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의 網羅的 綜合化를 통하여 어떤 하나의 基準을 찾을 수는 없으며 더 나아가 이를 하나의 理論 내지 모델이라고 칭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³⁸⁾ 따라서 이러한 이론은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를 算定하는 것과 類似한 문제에 적면하게 되며, 때문에 이는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 海外直接投資를 실행하는 기업의 意思決定過程에서의 여러가지 考慮事項이라고 할 수도 있다.

③ 이 이론은 결국 모든 것을 말하려다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³⁹⁾

다섯째로 이 이론은 또한 그 이론적 視角의 관점에서 形式的으로는 微視的 시각과 巨視的 시각을 아울러 고려함으로써 이 兩者를 綜合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기본적 성격은 微視的·經營學的 綜合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微視的인 성격의 독점적 우위론과 내부화이론에 단순히 입지요인을 추가시킴으로써 微視的 基礎 위에서 巨視的 要因을 절충하고 있으며 또한 巨視的 요인을 지나치게 입지요인에만 限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直接投資와 貿易을 포괄하는 一般均衡的 理論體系에는 도달하고 있지 못하며 이 때문에 多國籍企業의 海外直接投資가 당사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巨視的이고 規範的인 문제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 根據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현재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現象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학자가 웰스(L. T. Wells)이다. 웰스에 의하면 開途國의 투자 기업이 현지기업이나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現地 子會社와 경쟁할 수 있는 優位의 源泉은, 母國市場의 소규모적이며 價格彈力性이 높은 특성에 적응하기 위하여 勞動集約的인 工程과 제품을 개발하고, 또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역시 後發開途國에서도 類似한 사

회·경제적 환경과 필요에 적합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진출한 多國籍企業의 現地子會社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의 開途國 特有的 독점적 優위에 대한 實證的 根據은 ① 別다른 研究開發投資 없이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原本技術의 적절한 改良에 의해 외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한 臺灣의 두 투자기업의 事例研究(Ting, W. L., Schive, C., 1981)를 비롯하여, ② 開途國 投資企業들을 선진국 투자기업의 子會社와 비교할 때 規模의 면에서 더 작고, 보다 노동집약적 기술을 사용하며, 現地產 原資材를 생산에 더 많이 投入한다는 레크로(D. Lecraw)의 연구결과와, ③ 印度의 해외합작투자에 있어서 印度側의 出資分이 주로 資本財, 기계, 기초원자재, 기술적 노하우 및 경영서버비스의 형태로 제공되었다는 아가왈(J. P. Agarwal)의 연구결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에 대한 남비디 등의 開途國 海外直接投資企業에 대한 事例研究에서 그들은 8件 中 7件의 경우가 施設財의 調達源이 그들의 母國이 아니라 先進國임을 발견하였다. 이는 월스의 주장과는 相反된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 월스는 특별한 技術上的 優位가 없더라도 開途國投資企業은 費用節減을 통하여 선진국 투자기업에 대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관리자와 기술자에 대한 報酬에 있어서 開途國投資企業이 선진국투자기업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 마케팅면에 있어서도 開途國投資企業은 현지시장에 적합한 마케팅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선진국투자기업에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韓國의 味元(株)이 인도네시아에 現地法人을 設立할 때, 이미 日本의 이지노모도(株)가 대부분이 시장을 占有하고 있으면서 일본기업의 마케팅이 全體商標의 世界的 知名度에 의존하고 있었음에 反하여 현지인들을 앞세운 個別訪問 형식의 새로운 전략을 전개하고 현지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마케팅 기술로 경쟁할 수 있었던 事例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랄(S. B. Lall :1983)은 특히 開途國 투자기업이 선진국투자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적 優위요소로 기술진보의 不可逆性(irreversibility)을 들고 있다.⁴⁰⁾

일반적으로 技術進歩가 일어날 경우 當該產業에는 全般的인 構造變化가 일어난다. 그런데 技術進歩에 의해 보다 高度화된 產業構造로 移行한 후에는 다시 기술이 낮은 구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40) S. Lall, *The New Multinationals : The Spread of Third World Enterprise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83, p. 4.

즉 선진국투자기업이 開途國에 투자하는 경우 선진국의 高技術의 생산구조를 開途國의 수준에 맞는 低技術의 工程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그렇게 함으로써 지출되는 비용이 그렇게 하지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보다 많게 된다. 그러므로 開途國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진보의 不可逆性이 비교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한편 웰스(L. T. Wells)는 개도국투자기업들이 그들의 현지시장에 적합한 기술을 라이선싱에 의하지 않고 海外直接投資를 선택한 이유, 즉 市場內部化(internalization)의 이유를 다음 세가지로 들고 있다.

① 開途國 投資企業들은 선진국투자기업에 비하여 知名度가 낮기 때문에 그들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현지국의 潛在需要者가 그러한 기술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며, ② 開途國 投資企業이 가지고 있는 競爭上의 優位 즉 관리자나 기술자의 知識 등은 그 내용을 成文化시키기 곤란하고, ③ 國際的 特許權을 얻기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 등이다.

던닝이 지적한 立地特有的 要因(location-specific factors)도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開途國 投資企業들은 現地の 低賃金을 이용하고 선진국에 의한 貿易規制를 迂回的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低開發國으로 그들의 工場을 移轉시킨다. 대부분의 홍콩기업들은 이러한 動機에 의하여 해외투자를 하고 있으며(Chen, K. Y., 1981),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도 국내 賃金上昇과 추격해 오는 後發開途國企業과의 경쟁에 대응하여 輸出産業의 國際競爭力을 향상시키기 위한 手段이라고 하겠다(Sung-Hwan, Jo, 1981). 資源確保型 海外直接投資의 경우도 명백히 立地特有的 要素가 결정적인 요인인데, 우리나라나 대만과 같이 국내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 이러한 형태의 海外直接投資가 많다(Jo, S. H., 1981, Ting, W. L., Schive, C.).

그리고 부스지이트(V. Busjeet)의 對필리핀투자 事例研究에 의하면 開途國 製造業의 海外直接投資動機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勞動費와 淸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⁴¹⁾

이제 開途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이 해명해야 할 과제 즉 海外直接投資의 決定因, 현실적 行態 및 경제적 영향의 관점에서 던닝의 절충이론을 綜合評價하기로 한다.

첫째, 開途國 海外直接投資의 決定因에 관한 이론으로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競爭的 優位, 內部化要因, 立地的要因 등의 折衷理論의 三角構造 위에서 開途國

41) V. Busjeet, Foreign Investment from LD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Business School, 1980.

海外直接投資의 결정인 분석으로서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受容되고 있다.

둘째, 현실적인 行態의 해명문제로서 折衷理論은 開途國의 對先進國 投資 즉 逆投資 (reverse-order investment) 현상은 어느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연구로 元鍾根 교수는 우리나라 家電産業의 對美 直接投資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가설로서 절충이론을 제시하고 있다.⁴²⁾(表 III - 4 참조)

(表 III - 4) 韓國 家電産業의 對美投資에 대한 折衷理論의 適用

內 容	企業特有的 優位	內 部 化 要 因	立 地 的 要 因
	(1) 新參企業으로서 미국 기업에 비해 低賃金 (2) 新設工場으로 시설이 현대화 되어 生産性이 높음 (3) 낮은 管理費用 (4) 勞動組合이 없음 (5)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競爭的 優位를 점차 상실	(1) 部品, 中間財 市場의 내부화 및 현지시장 내부화 경험	(1) 關稅, 쿼타 등 무역장벽 회피 (2) 미국의 現地投資에 대한 投資誘因 提供

資料 : 元鍾根, 韓國家電産業의 對美直接投資에 관한 研究, 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86, pp. 56-166.

그러나 開途國企業이 선진국에서 현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源泉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다. 위에서 지적한 기업특유의 우위는 극히 미약하며 단지 部分的으로 現地市場에서 外國費用을 일부 상쇄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므로 경쟁적 우위의 원천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째, 海外直接投資의 規範的 側面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즉 鄧寧의 折衷理論은 국제경영학적 접근의 典型的인 部分分析理論으로서 고지마가 그의 巨視經濟的 접근이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결국 鄧寧의 절충이론은 기업의 微視的 觀點에서 海外直接投資를

42) 元鍾根, 韓國家電産業의 對美直接投資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6, pp. 56-166.

바라본 결과 巨視的 經濟單位인 國家經濟와의 마찰(conflicts)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던닝의 折衷理論은 현재까지의 이론 중 기업측면에서 開途國海外直接投資의 決定因을 가장 잘 분석해주고 있으나 단지 巨視的 要因을 立地的 要因으로서만 고려함으로써 規範的 側面에서의 示唆點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5. 既存의 이론을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理論으로 修正한 기디와 영의 主張

기디와 영(I. H. Giddy & S. Young)은 企業特有的 要素, 內部化的 要因 및 立地特有的 要因을 폭넓게 해석하면 既存의 이론으로써 日本 및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⁴³⁾ 그런데 傳統的 海外直接投資理論—PLC理論, 內部化理論, 獨占的 優位理論, 折衷理論—등은 근본적으로 海外直接投資企業은 現地國 기업에 비해 外國費用(cost of foreignness) 때문에 不利하게 되므로 이것을 相殺하고도 남을 수 있는 企業特有的 優位要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假定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특유의 優位는 不完全市場의 產物이며 이렇게 市場 不完全性에 근거한 傳統的 海外直接投資理論은 미국과 유럽의 多國籍企業을 설명하는데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기디와 영은 이러한 전통적 海外直接投資理論이 西歐의 大規模 多國籍企業에 비해 상대적으로 小規模·低技術의 非差別化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인근의 후발국으로 直接投資하는 日本型이나 開發途上國型 多國籍企業과 같은 非傳統的 多國籍企業(non-conventional MNE)의 海外直接投資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들은 多國籍企業의 기업특유우위의 源泉에 대한 연구가 ① 投資國 特性, ② 產業特有的 要因 등에 치우쳐서, ③ 產業內 決定要因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非傳統的 多國籍企業의 優位源泉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技術變化가 일어날 때에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戰略의 형태에 관한 프리먼(C. Freeman)의 분류를 사용하여 (예를 들어 공격적, 방어적, 모방적, 의존적 전략) 이 가운데서 특정의 전략(模倣이나 依存的 戰略)에 의존하는 海外直接投資 기업의 경우 이들이 移轉可能한 기업특유의 優位를 사용하여 海外直接投資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3) I. H. Giddy and S. Young, Conventional Theory and Unconventional Multinationals, in A. M. Rugman(ed.), New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Croom—Helm, London & Canberra, 1982, pp. 55~75.

특히 模倣戰略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市場先導者가 시장에 新製品을 소개한 후에 그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들은 특정한 市場欲求에 제품을 적응시킬 때 勞動費用 및 제조 기술의 면에서 優位를 갖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日本의 中小企業들은 모방전략을 추구하며 일반적 기술이나 제조경험에서의 優位를 이용하여 海外直接投資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비전통적 多國籍企業에 의한 海外直接投資現象도 일반적 생산기술이나 適應的 마아케팅 기술과 같은 移轉可能한 독점적 優位の 產物이므로 이들 優位는 기존 기업특유의 優位요소의 범위를 擴張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非傳統的 多國籍企業의 이러한 독점적 優位の 強度는 실질적으로 低技術의 성격을 띠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므로, 立地的 要因을 강조하여 규모가 작고 기술상의 優位가 크지 않은 기업이라도 有利한 立地特有的 要素가 작용하면 海外直接投資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이들 기업은 기업특유의 독점적 優位가 낮기 때문에 海外의 現地活動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우에만 海外直接投資가 가능하므로 費用節減의 방법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

- ① 現地 파트너와의 合作投資. 이는 現地情報費用을 節減하고 투자에 필요한 자금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② 競爭構造와 類型을 잘 알고 있는 同一投資國의 기업이 主要競爭者가 될 해외시장에 투자.
- ③ 下請母企業이 이미 진출하고 있는 등 限定的인 市場이 保障되어 있는 地域에 투자.
- ④ 租稅延期에 따른 租稅逃避가 가능하거나 利子補填 등과 같은 誘因을 제공하는 나라에 대한 투자.
- ⑤ 언어나 문화가 投資國과 類似한 국가 또는 地域的으로 가까운 나라에 투자.
- ⑥ 투자국보다 경제적으로 低開發 상태에 있어 現地競爭의 強度가 낮은 국가에 투자.

결국 이 이론은 折衷理論의 骨格下에서 企業特有的 獨점적 優位요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立地特有的 優位要因을 강조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기디와 영(I. H. Giddy & S. Young)의 주장을 개도국의 海外直接投資理論이 해명해야 할 과제의 측면에서 評價해 보면 다음과 같다.

44) 閔相基, 前掲論文, p. 676.

첫째, 기디와 영의 주장은 先發開途國으로부터 後發開途國으로의 투자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즉 一般的 生産技術과 適應的 마아케팅 기술이 海外直接投資 市場에서 獨占的 優位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이 立地特有的 優位要素와 結合할 때에 海外直接投資가 일어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開途國으로부터 先進國으로의 逆投資 現象을 설명하지 못한다. 즉 일반적 생산기술이나 적응적 마아케팅 기술이 선진국에서는 獨占的 優位를 형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家電産業의 對美 直接投資의 경우 模倣戰略을 통한 市場適應力이 海外直接投資를 誘發하게 하는 비교우위의 원천이라는 기디와 영의 주장은 잘 맞지 않는다.⁴⁵⁾

日本의 경우 비록 상당한 技術水準 下에서 모방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 家電業體의 경우는 상품디자인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러한 優位가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對先進國投資의 경우 開途國投資企業 特有的 競爭優位에 대한 源泉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세째, 이 접근이론은 典型的인 部分均衡理論으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아무런 示唆點을 제공하지 못한다.

IV. 巨視的-經濟學的 接近理論

이 접근방법은 선진국의 海外直接投資와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에 나타나 있는 현상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現象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獨自的인 理論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지마(小島清)와 오자와(T. Ozawa)는 주로 노동집약적이고 표준화된 기술분야의 중소기업에 의한 對開途國投資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日本型 海外直接投資는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미시적 접근방법의 先進國型 海外直接投資理論으로는 적절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日本型 海外直接投資의 動機로서는 本國産業의 비교우위구조의 변화, 증대하는 환경적 制約 및 주요 원자재 공급에 있어서 증가하는 不確實性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이 보다 중요하고 해외 현지활동에 필요한 경쟁우위도 投資國의 정부지원이나 受容國의 投資誘因

45) Y. W. Jun, The Internalization Process of the Firm : The Case of the Korean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Sloan School of Management, MIT, 1985, p. 318.

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적 誘因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日本型投資를 설명하려는 고지마와 오자와의 거시경제적 접근이론들을 擴張하여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節에서는 고지마와 오자와의 주장을 자세히 분석한 후 開途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이 해명해야 할 과제의 입장에서 條目別로 批判을 加하고자 한다.

1. 고지마(小島清)의 巨視經濟學的 接近理論

고지마는 海外直接投資의 문제를 단순히 個別企業의 營業活動이라는 차원에 국한시켜 논의할 것이 아니라 視角의 범위를 좀 더 넓혀 巨視經濟的 내지 國民經濟的 次元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⁶⁾

이 이론은 지금까지 주로 經營學者들에 의해 제시되어 온 企業成長論과 製品壽命週期理論 및 產業組織論的 接近理論 그리고 이들을 統合하려는 折衷理論 등은 모두 근본적으로 微視的·經營學的 觀點에서의 분석이며 이들이 不完全競爭모델을 假定한데 反해 고지마는 完全競爭理論을 배경으로 生產要素의 自由移動과 국제무역의 相互補完關係를 假定하고 있으며 직접투자의 實證的 성격과 規範的 성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마의 주장은 實證的 側面과 規範的 側面을 가지고 있는데⁴⁷⁾ 우선 實證的 側面으로서 海外直接投資의 決定因에 관한 거시경제적·國際分業論的 모델, 이른바 고지마의 命題를 먼저 검토한 후 日本型投資(貿易指向的 投資)와 美國型投資(逆貿易指向的 投資)로 나누어 어느 형태가 國際經濟的·國民經濟的 觀點에서 더 바람직한가를 분석한 규범적 측면을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지마의 주장을 規範的 측면과 實證的 측면으로 나누어 批判하고 이를 통하여 開途國 海外直接投資에 주는 이론적 示唆點을 정리한다.

1) 고지마의 海外直接投資理論(實證的 側面)

(1) 고지마命題

고지마의 이론적 중심은 海外直接投資의 類型化와 이에 관련된 경제적 영향의 문제에 대한 규범적 측면에 있지만 그는 이와 관련하여 海外直接投資의 決定因에 관한 巨視經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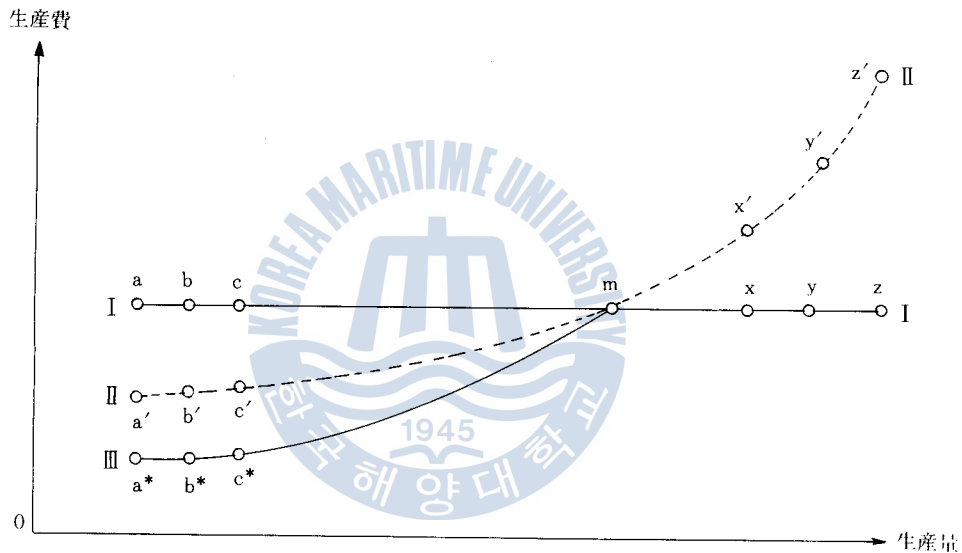
46) Kojima이론은 거시경제적 접근이론이라는 명칭 외에도 要素賦存 接近理論, 國際分業論的 接近理論, 貿易指向的 海外直接投資理論, 日本型 海外直接投資理論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운다.

47) S. Sekiguchi and L. B. Krause,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ASEAN by Japanese and The United States, R. Garnant(ed.), Asian in a Changing Pacific and World Economy, Australian National Univ., 1980, p. 456.

的·國際分業論的 모델, 이른바 고지마명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海外直接投資는 투자국에서 이미 比較劣位에 있거나 비교열위를 갖게 될 산업 즉 限界産業(marginal industries)이면서 受容國의 입장에서는 潛在的인 比較優位를 가지는 산업에서부터 順次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基本命題(basic theorem)로 하여 貿易指向的 直接投資와 逆貿易指向的 직접투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다음의 (圖 IV-1)를 통하여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圖 IV-1) 比較生産費에 따른 直接投資의 決定



資料: 小島 清, 多国的企業の直接投資, 다이아몬드社, 1981, p. 24.

여기서 線 I-I 과 II-II는 각각 先進國인 投資國(I國)과 開發途上國인 受容國(II國)에 있어서의 生産費를 나타내는 것으로 a, b, c, ……x, y, z産業에 있어서 一定한 生産費로서 생산할 수 있는 生産量의 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I-I과 II-II가 교차하는 점 즉 兩國의 生産費 比率와 換率이 일치하는 점을 m이라고 한다면 I國의 比較우위는 x, y, z산업에 있고, a, b, c산업은 比較劣位에 있는 限界산업이 된다. 따라서 만약 a, b, c산업에 대하여 I國으로부터 II國으로의 海外直接投資가 있게 되면 이러한 直接投資와 함께 I國의 限界産業에서의 技術·經營知識 등이 II國의 資本受容産業으로 移轉됨으로써 II國의 生産費線은 a', b', c'로부터 a*, b*, c*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直接投資가 있기 전보다 II國의 比較우위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II國으로부터 I國으로의

貿易이 擴大된다. 이것이 이른바 무역지향형 내지 일본형 海外直接投資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I國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 x, y, z 에서 直接投資가 있게 되면 새로운 생산비는 비록 x', y', z' 보다는 낮지만 투자국에 있어서의 생산비 x, y, z 보다는 높게 되어 海外直接投資가 貿易을 代替함으로써 貿易量이 減少되는 이른바 逆貿易指向型 또는 美國型 海外直接投資가 된다는 것이다.

위의 基本命題로부터 다음 다섯가지의 補論을 導出하고 있다.

① 比較優位原理에 의한 국제무역과 海外直接投資의 理論的 綜合이 가능하며 또한 國際分業的·動態的 接近도 모색해 볼 수 있다.

② 日本型 海外直接投資는 貿易과 補完關係에 있는 純貿易指向的 海外直接投資이다.

③ “限界的 産業”이란 개념을 “限界的 生産”이란 개념으로 확장하여 産業分類를 기업 특성에 따라 細分한다.

④ 海外直接投資의 巨視經濟論的 接近은 HECKSCHER-OHLIN(Heckscher-Ohlin) 모델의 假定에 의한 比較優位理論을 기초로 한다.

⑤ 比較生産費는 比較利潤率과 대응한다.

이 중에서 比較生産費와 比較利潤率의 對應關係가 貿易指向的 海外直接投資의 결정원리를 설명하는 基準이 되며 이것이 고지마理論의 核心이다.⁴⁸⁾

무역지향적 또는 逆貿易指向的 海外直接投資의 決定原理는 比較優位(比較生産費)原理에 의해 성립됨은 이미 논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理論的 比較生産費를 現實的으로 어떻게 評價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潛在的 比較生産費는 現實的인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比較利潤率의 개념을 도입하여 “比較生産費와 比較利潤率의 對應命題(correspondence between comparative costs and comparative profit rate)”를 제시하였다. 이는 무역이 比較生産費差에 따라 결정되듯이 투자 역시 比較利潤率差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려는 論理이다.

어쨌든 고지마는 자신이 이러한 명제를 다음과 같이 證明하고 있다. 즉,

48) J. Panglaykim, Japanese and ASEAN : A Look at the Direct Foreign Investment Patterns and Its Relations with Trade, KDI, 1983.

① 販賣價格(P)과 販賣量(Q) 및 販賣收入(T)의 관계에서,

$$P = \frac{T}{Q} = \frac{R/Q}{R/T} = \pi / r$$

단, R : 이윤, π : 제품단위당 이윤률, r : 판매고이윤률

② 投資國과 受容國에서의 X財와 Y財의 相對價格은,

$$\frac{P_x}{P_y} = \frac{\pi x / r_x}{\pi y / r_y} = \left(\frac{\pi x}{\pi y} \right) \left(\frac{r_y}{r_x} \right),$$

$$\frac{P_x'}{P_y'} = \frac{\pi x' / r_x'}{\pi y' / r_y'} = \left(\frac{\pi x'}{\pi y'} \right) \left(\frac{r_y'}{r_x'} \right)$$

③ 만약 I國이 Y財에 비교우위를 가진다면 比較生産費 原理에 따라,

$$\frac{P_x}{P_y} > \frac{P_x'}{P_y'}$$

④ 위의 ②와 ③의 관계에서,

$$\left(\frac{\pi x}{\pi y} \right) \left(\frac{r_y}{r_x} \right) > \left(\frac{\pi x'}{\pi y'} \right) \left(\frac{r_y'}{r_x'} \right)$$

⑤ 自由競爭的 條件을 전제로 하므로 i) $\frac{\pi x}{\pi y} = \frac{\pi x'}{\pi y'}$, ii) $\pi x = \pi x'$, iii) $\pi y = \pi y'$, iv) $\pi x = \pi y = \pi x' = \pi y'$ 중의 어느 것인가를 채택하면 결국 $\frac{P_x}{P_y} > \frac{P_x'}{P_y'}$ 이기 위해서는 $\left(\frac{r_y}{r_x} \right) > \left(\frac{r_y'}{r_x'} \right)$ 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各國은 比較優位를 가지는 産業에서 比較利潤率이 높다는 명제가 성립된다.

이상과 같은 그의 명제는 결국 比較生産費差에 對應하여 比較利潤率差가 발생되므로 국제무역이 비교생산비의 방향에 따라 발생하듯이 海外直接投資는 비교이윤률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理論化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의 이러한 비교생산비·비교이윤률 대응명제가 국제무역과 直接投資를 同一한 原理로써 설명하는 統合的 理論인 동시에 統一的 理論이 된다는 것이다.

(2) 巨視經濟的 接近理論의 理論的 評價

海外直接投資의 문제를 단순한 個別企業的 營業활동이라는 차원에 국한시켜 논의할 것이 아니라 視角의 범위를 보다 넓혀 巨視經濟的 내지 國民經濟的 觀點에서 논의하려는 고지마의 접근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理論的 評價를 받고 있다.

① 이 이론은 헤셔-올린定理(Heckscher-Ohlin theorem)·립츨스키定理(Rybczynski theorem)·린더(S. B. Linder)의 代表的需要理論(representative demand theory)·아까

마쓰(赤松 要)의 雁行形態論 追跡製品週期論의 理論體系를 綜合化하여⁴⁹⁾ 美國系 多國籍 企業을 중심으로 하는 現存理論들에 대체되는 새로운 이론체계의 정립을 보여주고 있다.

② 巨視的·一般均衡的 分析體系를 통하여 海外直接投資의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巨視的·經濟的 영향이라고 하는 規範的 문제에 대한 이론적 根據를 제공해준다.

③ 貿易과 投資를 代替的 關係로 파악하려는 먼델(R. A. Mundell, 1957)類의 이론이나 여타의 海外直接投資理論들과는 달리 이를 補完的 關係로 파악함으로써 貿易과 投資를 綜合하는 一般理論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 이론은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產業內貿易(intra-instry trade)에 대한 하나의 理論的 說明力을 제공해준다.

④ 이러한 이론은 제품시장에서 獨占的 또는 寡占的 統制를 행하는 대규모 기업에 의한 海外直接投資가 아닌 中小企業에 의한 海外直接投資現象을 理論化하고 있으며, 또한 投資國과 受容國間의 技術隔差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의 直接投資를 理論化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新興工業國이 후발개도국에 행하는 海外直接投資 및 產業調整 등에 대한 政策的 含意를 지닌다.⁵⁰⁾

⑤ 國際經營學的 接近에 의한 技術的 海外直接投資理論이 모두 市場의 不完全性을 이용한 독점이윤이 획득을 지향하는 것임에 대하여 고지마모델은 完全競爭下의 헤셔-올린(Heckscher-Ohlin)이론을 기초로 함으로써, 市場의 不完全性이나 독점적 利潤이 海外直接投資의 필수조건은 아니며 自由競爭的 市場組織에 따른 非獨占的 海外直接投資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이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공헌을 이룩하였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고지마의 巨視經濟的 접근이론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점이 대단히 많은 것을 그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여러가지 觀點에서의 理論的 批判들을 받고 있는 바, 우선 그의 理論體系 全體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批判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이론은 靜態的 觀點의 分析에 머물러 있다. 그가 논의한 日本型投資의 특징은 결국 두 나라간의 經濟發展段階의 差異가 반영된 것으로서 하나의 經過過程(passing phase)上的 現象이다.⁵¹⁾ 또한 일본의 60년대 투자는 例外的(atypical)인 것으로서 앞으

49) Chong S. Pyun, Japanese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 An Analysis and Extension of the Kojima Hypothesis, 國際韓國人經濟學者學術大會論文集(IV), 韓國經濟學會, 1984, p. 1350.

50) Ibid., p. 1366.

51) H. W. Arndt, Professor Kojima on the Macro-Economic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June 1974, p. 34.

로의 日本投資는 高度産業分野를 비롯한 全産業에 있어서의 대규모 독점적투자로 특징지워질 것이다.⁵²⁾ 또한 美國型, 日本型이라는 이같은 二分法的인 분류는 의문스러우며 日本型 投資란 投資對象國의 경제발전 패턴이 日本과 類似하였기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서 日本의 産業構造가 미국의 산업구조에 보다 접근하면 이러한 구분은 없어지고 美國의 投資類型에 접근할 것이다.⁵³⁾

② 이 이론은 巨視的 要因만을 重視한 나머지 微視的·國際經營學的 要因들에 대한 고찰을 결여하고 있다.⁵⁴⁾ 따라서 海外直接投資의 立地問題나 거시경제적 영향이라는 규범적 문제에 대한 이론적 涵意는 제공하고 있으나 해외진출기업의 現地國 競爭企業에 대한 實質的 優位性 등에 대한 說明力을 갖지 못한다.⁵⁵⁾

③ 이 이론은 資源開發에 대한 分析이 없고 선진국기업의 對開發國 제조업투자의 분석에 限定하고 있어 그 分析對象이 制限的이다.⁵⁶⁾ 따라서 先進國間 技術·資本集約的 尖端産業에서의 直接投資를 설명하지 못하며 특히 相互投資(corss investment)를 설명할 수 없다.⁵⁷⁾

한편 이 이론은 現實的으로 檢證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假說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이론적 推論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海外直接投資의 決定因에 관한 이론과 고지마 基本命題를 뒷받침하는 比較生産費와 比較利潤率 命題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그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① 比較生産費가 國際貿易의 決定要因이듯이 比較利潤率이 直接投資의 決定要因이라고 생각하는 類推는 무의미하다.

52) J. E. Roemer, US-Japanese Competition in International Markets : A Survey of the Trade-Investment Cycle in Modern Capitalism, Research Series, No. 22, Buckley, 1975.

53) S. Sekiguchi and L. B. Krause,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ASEAN by Japanese and the United States, op. cit., pp. 436~439.

54) P. A. Geroski, Book Review, Economic Journal, Mar. 1979.

55) 이에 대한 小島의 최근의 저서에서는 요소부존과 요소가격비율이라는 巨視的 要因 외에 기업의 능력 요인을 고려한 생산함수라는 微視的 要因을 포함시킴으로써 종합이론을 제시한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小島清,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文眞堂, 1985, 第2章 참조)

56) H. P. Gray, Macro Economic Theor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An Assessment, in A. M. Rugman(ed.), New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Croom-Helm, London & Canberra, 1982, p. 177.

57) P.J. Buckley, New Theories of International Business : Some Unresolved Issues, in Mark Casson(ed.), The Growth of International Business, London, 1982.

② 要素市場에 歪曲이 없는 한 그가 前提하는 바와 같은 完全競爭의 條件下에서는 一國內 兩産業에 있어서의 生産要素에 대한 報酬率은 均等化될 것이므로, 比較利潤率은 모두 1이 되어 그와 같은 比較利潤率差가 발생되지 않는다.

③ 따라서 比較利潤率差가 의미를 가지려면 오히려 寡占的 市場에서의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比較利潤率과 比較生産費間의 確定的 關係를 구한다는 것은 無理이다.

④ 資本의 國際的 移動이 없는 2國 2財의 세계에서의 比較優位理論은 各國이 비교우위에 있는 1財 밖에 수출할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이루어지는 直接投資에 있어서는 優位에 있는 兩産業 모두가 해외로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不合理하지 않다. 즉, 기업이 해외에 투자함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絶對的 利潤率差이며 그가 말하는 比較利潤率差는 아니다.⁵⁸⁾

2) 고지마理論의 規範的 側面

(1) 美國型投資(逆貿易指向的投資)와 日本型投資(貿易指向的投資)

고지마는 海外直接投資의 類型을 그 投資誘因에 따라 市場指向型·要素指向型 投資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나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 水平的·垂直的·多角的 統合類型으로 분류하는 지금까지의 방법들은 주로 美國系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 학자들에 의한 분류였다고 전제하고 최근에 이르러 일본의 海外直接投資는 그 量的 增加와 더불어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美國型投資와 日本型投資로 區分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는 우선 美國型投資(American type investment)는 日本型投資와 비교할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① 寡占的 大企業이 利潤極大化를 목적으로 資本·技術·經營能力 등 諸經營資源의 巨大性和 卓越性을 무기로 하여 世界市場占有率을 높이기 위한 競爭的인 市場指向的 進출을 행한다.

② 比較優位構造上 先發成長産業(전기·전자·기계·화학·의약·수송기 등)부터 微視的·産業組織論的 觀點에서 진출한다.

③ 세계에 뻗어있는 子會社網(network)을 통하여 諸去來를 企業內部에서 행하는 内部

58) Chung H. Lee, On Japanese Macroeconomic Theorie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31, No. 4, July 1984, p. 718.

化로 거래코스트의 節減과 이윤극대화를 행한다. 따라서 이는 多國籍企業型 海外直接投資라고 특정지워도 좋다.⁵⁹⁾

④ 投資地域도 대부분이 선진국이며 所有政策도 시장을 內部化하고 企業內에서의 獨占利潤을 획득함에 容易하도록 完全所有가 대부분이다.

⑤ 때문에 이러한 미국형투자는 미시적·경영학적 이론으로부터 옹호된다.

한편 일본의 海外直接投資는 70年代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행해졌고 따라서 投資地域·對象產業·規模 등이 美國型投資와는 相異한 특성들을 지닌다. 이러한 일본형 투자(Japanese type investment)를 미국형 투자와 對比하여 그 특징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많은 中小規模의 기업들이 資源產業 및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資源指向的·勞動指向的 투자를 행한다.

② 비교우위의 구조상 비교우위가 弱화되었거나 標準化된 산업(섬유·의복·철강가공·자동차조립·라디오 등의 電氣器機)에 巨視的·國民經濟的 觀點에 입각하여 진출한다.

③ 때문에 海外直接投資를 통하여 投資國의 比較劣位產業이 資本受容國의 비교우위산업으로 轉換됨으로써 쌍방의 산업구조를 高度化시킴과 동시에 相互間의 調和的인 貿易의 擴大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이는 經濟發展指向型投資라고 할 수 있다.⁶⁰⁾

④ 投資地域의 면에서 보면 대부분 開發途上國 특히 아시아·南美地域에 투자비중이 높으며 所有政策도 주로 合作投資의 형태를 취한다.

그는 이러한 海外直接投資의 類型化를 통하여 미국형투자를 逆貿易指向型投資(reverse/anti-trade oriented type)로, 일본형투자를 무역지향형투자(trade oriented type)로 규정하고 따라서 後者가 巨視的·國民經濟적 觀點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선 미국형투자가 逆貿易指向的이라는 것은 미국의 투자는 比較優位라는 巨視的·國民經濟的 觀點을 무시하고 獨占的企業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첨단산업에서의 市場指向的 투자였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의 비교우위의 상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受容國과의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미국의 무역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59) 小島清, 日本の海外直接投資, 文眞堂, 1985, p. 15.

60) 上掲書, p. 16.

반면 일본형투자는 투자의 대부분이 資源産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獨占的인 市場擴大와 利潤追求보다는 일본의 비교우위를 補完하는 방향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標準化된 産業 또는 比較優位가 弱화된 산업에서 거시적·국민경제적 관점에 입각한 투자를 함으로써 自國의 産業構造의 調整은 물론 受容國의 工業化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분히 比較優位를 補完하는 貿易指向的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대체로 美國型投資가 개별기업적 입장에서는 合理的일지 모르나 國民經濟 또는 國際經濟라는 巨視的 次元에서는 不利한 점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先發成長技術에 기초한 대규모 투자는 受容國인 開發途上國에 하나의 엔크레이브(enclave)를 형성함으로써 그 경제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며 투자국인 미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美國型投資는 결국 그들의 比較優位産業이 競爭的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결과를 가져와 尖端成長産業은 경쟁국으로부터 그 優位性을 상실당하고 비교우위가 약화된 산업은 後發國들에 위해 침식됨으로써 國際收支가 惡化되며 雇傭마저 惡化되어 궁극적으로 成長의 障礙요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형 海外直接投資는 미국형 투자와는 달리 국민경제나 국제경제적인 巨視的 관점에서의 有利性을 가진다고 주장된다. 먼저 受容國인 開發途上國의 입장에서 볼 때 中小規模의 기업의 진출은 受容國의 市場規模가 작다든지 경제발전단계가 低級하다는 점에서 技術移轉 및 雇傭增大 등의 波及效果(spill-over effect)가 크며 또한 天然資源·農産物·加工農産物 등의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산업부문의 개발에 기여할 뿐 아니라, 投資國의 입장에서는 비교우위가 약화된 산업이지만 開發途上國에 移轉되면 여전히 비교우위를 가지는 산업이 되므로 그들의 비교우위를 強化시켜준다는 것이다.

한편 투자국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斜陽産業이 해외로 移轉되고 또한 해외투자를 통한 저렴한 노동력의 획득이라는 유리한 立地性을 가짐으로써 國際收支를 好轉시키고 스스로의 비교우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急速한 成長에 따른 要素賦存의 변화로 일본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고 斜陽産業化되면 이웃의 저렴한 노동력을 추구하는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로써 일본의 比較劣位産業은 開發途上國의 비교우위산업으로 更生되고 이는 現地國의 輸出增大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일본형투자는 더 나아가 南北間 쌍방의 비교우위구조의 高度化를 調和的으로 촉진시켜 줌으로써 南北貿易의 再編成과 무역의 증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國家別 類型分類의 評價

그렇다면 이러한 고지마의 投資類型分類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이러한 논의는

적어도 ① 일본의 투자를 과연 그와 같이 설명함이 適切한가 하는 實證的 문제와 ② 이러한 投資類型的 분류가 妥當하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경제적 영향은 고지마가 제시하는 바와 같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規範的 問題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첫번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그의 類型化는 분명히 美國型과 日本型이라는 독특한 投資類型的을 잘 모델링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반드시 妥當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批判도 가능하다. 때문에 이러한 고지마 모델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符合成을 가지느냐는 문제는 보다 시간을 두고 實證的인 자료들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나 이러한 일본의 海外直接投資를 그와는 달리 미국형투자를 설명하는 諸理論을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있어 주목된다.

① 産業組織論的 獨占的 優位論(monopolistic advantage theory)의 관점에서 일본의 海外直接投資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標準化되고 技術集約度가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中小規模의 일본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우위성을 여러 각도에서 규명하였다.⁶¹⁾

② 製品壽命週期理論(product life cycle theory)을 통하여 革新者가 아닌 模倣者로서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⁶²⁾

③ 寡占的 對應論(oligopolistic reaction theory)의 관점에서 일본의 海外直接投資는 결국 산업에서의 과점적 경쟁에 의한 밴드왜건효과(band wagon effect)로서 설명하려는 노력도 있었다.⁶³⁾

한편 日本投資의 規範的 측면에 대한 고지마의 논리에 대해서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比判도 되고 있다.

① 고지마는 日本型投資와 美國型投資와의 후생면에서의 평가기준으로 단지 국제무역의 成長만을 보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海外直接投資는 投資國와 受容國에서의 단순한 무역의 성장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치므로 動態的·總體的 效果

61) M. Y. Yoshino, Japan's Multinational Enterprise, op. cit., Ballinger, 1976.

62) Y. Tsurumi, The Japanese are Coming, Cambridge, Mass., Ballinger, 1976.

63) 아래를 참조.

(1) M. Y. Yoshino, Japan's Multinational Enterprise, 1976.

(2) Y. Tsurumi, op. cit.

의 측면에서 海外直接投資의 規範的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

②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日本型投資를 국제적으로 合理化시키려는 뜻으로 局限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 사실 戰後의 日本經濟는 美國型 投資의 導入을 통하여 西歐의 先進技術導入을 이룩함으로써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는데 그렇다면 고지마가 주장하는 일본형투자란 결국 지금의 開途國들에게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바로 일본의 경험으로써 立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형투자란 결국 여타 新興工業國들의 추격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첨단기술의 移轉을 꺼리는 일본기업들의 경향을 옹호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③ 고지마理論에 따르면 賃金이 낮은 開途國은 勞動集約財의 生産活動 특히 部品生産에 머물게 되는데 이는 開途國의 경제를 永久的인 從屬的 下請經濟로 머물게 할 우려를看過하고 있다. 또는 이러한 極端的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이론에 따른 海外直接投資는 결국 資本受容國의 産業構造가 지나치게 투자국에 依存的이 될 가능성이 커지며 또한 이로 인해 受容國의 무역규모는 커질지 모르나 投資國에 대한 貿易依存度가 감소하지 않아 國際收支가 계속하여 赤字狀態에 머물 우려가 있다.

④ 日本型投資를 통해 상호간 比較優位가 強化됨으로써 貿易指向的인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直接投資란 一方通行的이고 技術의 相互交流現象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또한 動態的인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貿易促進的이라고만 할 수 없게 된다.⁶⁴⁾

3) 고지마理論이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에 주는 示唆點

고지마理論은 두가지 면에서 新興工業國에 정책적 의미를 示唆한다.

첫째, 海外直接投資는 특히 規模의 經濟와 製品差別化를 통해 그들의 제품시장에 獨占的 또는 寡點的 統制를 하는 巨大한 기업의 領域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에 의한 인근 아시아 국가로의 直接投資는 相對的으로 競爭的 産業의 중소기업에 直接投資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日本과 受容國과의 상대적으로 근소한 技術隔差가 日本으로 하여금 開發途上國에 直接投資하게 하는 優位가 된다는 고지마의 主張은 海外直接投資의 獨占的 필요성을 강조하는 見解와 반대되는 것으로 흥미로운 주장이다. 이러한 두가지 주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新興工業國에 중요한 政策的 의미를 준다.⁶⁵⁾ 또한 상대적으로 競爭的 環境下에서

64) 小田正雄, 國際貿易と 直接投資, 新評論版, 1975, p. 163.

同質인 제품(예를 들어 섬유, 의류,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中小企業들조차도 關稅障壁, 投資補助金, 조세혜택 등에 기인하는 市場의 不完全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斜陽産業을 投資保護制度나 補助金 등을 통해 외국에 동일한 산업으로 直接投資하도록 촉진시켜야 한다.

즉 만약 國內産業이 外國에 同種 産業으로 直接投資하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새로운 다른 산업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社會的 觀點에서 외국에 동일산업으로 直接投資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80년대 들어 産業構造를 高度化하는 것이 時急한 課題로 등장하였다. 國內賃金의 上昇, 後發開發途上國의 追擊으로 勞動集約的 産業이 比較優位를 상실해가고 있으므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知識集約的·技術集約的 産業으로의 産業構造 高度化를 추진함에 있어 일본의 경우와 같이 해외투자를 보다 積極的으로 利用할 필요가 있다.

힐과 존스(H. Hill & B. Johns)의 對아시아地域 투자연구에 의하면 국가에 따라 開發途上國에 의한 투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表 IV-1 참조) 앞으로 開發途上國간의 直接投資는 고지마가 規定한 이른바 日本型投資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⁶⁵⁾

즉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인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海外直接投資하는 동기는 60년대 일본의 海外直接投資를 닮고 있으며 특히 대만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資源貧困國들이 資源確保 또는 그것을 現地에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진출한다는 것이다.⁶⁷⁾

한편 고지마는 선진국의 對開發途上國 直接投資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는데⁶⁸⁾ 이것은 先發開發途上國의 對後發開發途上國 直接投資의 役割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① 開發途上國 經濟發展 水準에 맞는 産業으로 점진적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開發途上國이 원한다면 資本, 技術, 經營技法을 한 묶음으로 통제를 수반하여 移轉하는 대신에 서로 분리하여 라이선싱 또는 管理契約 등의 방식으로 經營資源이 移轉되어야 한다. 이를 묶음으로 移轉하면 獨占的 利益을 가질 수 있는 반면 波及效果가 적기 때문이다.

65) Chong S. Pyun, Japanese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 An Analysis and Extension of the Kojima Hypothesis, 1984, pp. 1366~1367.

66) H. Hill and B. Johns, The Role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East Asian Countries, Welfirtschaftliches Archiv, Band 121, Heft 2, 1985, p. 366.

67) Ibid., p. 365.

68) K. Kojima, Direct Foreign Investment : A Japanese Model of Multinational Business Corporations, op. cit., pp. 93~94.

(表 IV - 1)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投資國(source country) 分布

	投資國 / 地域 (%)										
	미	국	일	본	유	럽	아	시	아	기	타
1967~1971											
홍	콩	53.5		22.4		16.2		3.0		4.9	
한	국	17.1		56.1		12.6		0.6		13.5	
대	만	34.7		15.9		19.3		7.9		18.8	
인	도	베	시	아		28.3		17.0		8.5	
								30.4		15.8	
싱	가	포	르			27.2		6.9		36.2	
								7.9		29.7	
1972~1976											
홍	콩	48.0		17.2		15.3		13.2		6.3	
한	국	12.3		66.7		12.2		0.6		8.6	
대	만	22.3		19.2		11.2		7.9		44.6	
인	도	베	시	아		0		59.8		12.8	
								23.9		3.4	
필	리	핀				24.7		44.5		17.3	
								13.4		0.1	
싱	가	포	르			33.7		20.2		28.1	
								7.9		18.0	
태	국	15.6		34.7		7.9		13.5		36.2	
1977~1982											
홍	콩	44.6		24.0		17.8		6.7		6.9	
한	국	40.7		33.1		14.1		5.4		6.6	
대	만	31.1		18.8		5.1		7.9		45.0	
인	도	베	시	아		9.0		51.0		14.3	
								24.1		1.5	
말	레	이	시	아		8.6		19.9		7.9	
								7.9		71.5	
필	리	핀				21.2		17.3		30.7	
								11.6		0.3	
싱	가	포	르			30.7		7.9		40.4	
								7.9		28.9	
태	국	5.2		14.0		7.9		4.9		75.9	

資料 : H. Hill & B. Johns, op. cit., p. 363.

③ 따라서 完全子會社形態 보다는 合作投資形態가 보다 바람직하다.

④ 중소기업을 이용하여 복잡한 기술 보다는 現地の 賦存要素에 보다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이롭다.

⑤ 技術移轉, 勞動力訓練, 雇傭增大, 外部經濟效果 등 보다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진 산업에 優先的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특수계층이 아닌 一般大衆의 大量消費에 有用한 產業에 투자되어야 한다.

⑥ 資源開發은 輸入連繫 또는 共同生産 方式으로 투자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海外直接投資의 역할은 獨占의 利潤의 永續的 추구가 아니라 受容國側에 不足한 產業要素를 補完해 주는 교사적 역할에 있으므로 所有權의 段階的 撤收(fade out)가 바람직하다.

⑧ 이상의 海外直接投資 정책의 목표는 開發途上國의 국민경제적 발전에 부응하고 南北貿易의 再編成과 확대에 있으므로 先進國 또는 先發開途國의 무역 및 해외투자 정책이 쌍방국의 產業構造 高度化를 促進하고 南北무역의 점차적 발전을 보장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본의 直接投資는 어떤 開途國의 인근의 他開途國으로 直接投資하는데 대해 많은 政策的 示唆點을 제공한다. 그러나 고지마理論은 資源貧困 開途國의 資源確保型 投資나 先發開途國에서 後發開途國으로의 海外直接投資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나 開途國에서 先進國으로의 尖端產業에서의 大規模的인 逆投資(reverse-order investment)는 설명해 주지 못한다.

2. 오자와(T. Ozawa)의 巨視要因—微視要因(macro factor vs. micro factor) 모델

기존의 독점적 우위이론에 대한 補完的 分析의 틀로서 제시된 고지마理論의 擴張모델로 특히 일본이 60년대 中期 이후 갑자기 海外直接投資가 增加한 이유를 리카도—힐스의 産業停滯의 陷穽(the Ricardo-Hicks trap or industrial stagnation)으로 설명하고 근본적으로 일본의 海外直接投資를 촉진하게 한 요인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리카도가 주장한 停滯의 이론을 一般化 한 힐스에 의하면 한 産業經濟는 無限히 成長할 수 없으며 반드시 土地나 勞動力과 같은 必須產業의 不足에 直面한다는 것이다.⁶⁹⁾

오자와(Terutomo Ozawa)에 의하면 일본은 60년대 中期에 勞動力不足, 賃金上昇 등

69) C. H. Lee, U. S. and Japanese D. F. I. in Korea : A Comparative Study,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Feb. 1980, p. 718.

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장애에 부딪혔었다. 그래서 天然資源, 勞動 등의 부족에 기인한 産業停滯로 부터 받돋움하려는 것이 일본의 海外直接投資이었다.⁷⁰⁾

그리고 일본의 海外直接投資를 촉진하게 한 要因을 美國의 경우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中心內容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日本의 투자를 설명하는데 投資國 및 受容國에 寡占的 市場構造의 存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고지마의 主張을 확장하여 투자국 즉 일본에 이러한 寡占的 構造가 있지 않다는 점이 그들의 既存市場을 防禦할 競爭力의 弱화를 가속시켜 좀 더 有利한 賦存要素가 있는 국가로 투자를 촉진시켰다.⁷¹⁾

둘째, 美國 및 기타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에는 微視經濟的 要因이, 日本의 경우는 巨視經濟的 要因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西歐의 다국적기업들은 規模의 成長(size growth)과 組織高度化(organizational sophistication)를 추구하려는 기업의 發展過程의 결과인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國內 賦存要素의 不足, 資源의 安定的 確保의 必要性, 환경적 制約 등의 거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⁷²⁾

즉 일본의 直接投資는 企業의 內部的 要因보다는 外部的인 投資受容國 및 일본 경제 전체의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는데 이러한 거시적 영향이 가장 잘 나타난 예가 아시아에 대한 투자인 것이다.⁷³⁾

셋째, 일본의 경우 특정산업이 競爭의 일수록, 즉 寡占的 性格이 弱하고 技術隔差가 작을수록 해외생산이 활발하였는데 이는 거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⁷⁴⁾

이 모델이 갖는 意義는 複合的으로 나타나는 影響의 요인을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일본의 海外直接投資의 特殊性과 연결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자와의 이론은 고지마이론과 마찬가지로 靜態的 分析이라는 점과 日本 製造業의 直接投資는 충분한 企業特有的 優位가 없어서 정부의 支援 등 巨視的 要因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産業特有的 優位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⁷⁵⁾

결국 이 理論은 거시적 영향을 강조한 나머지 실제로 기업의 측면에서 現地企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원천에 대한 분석, 즉 微視的 分析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70) Ibid., p. 719.

71) T. Ozawa, *Multinationalism, Japanese Style*, Princeton Univ. Press, 1979, p. 83.

72) Ibid., pp. 84~88.

73) T. Ozawa,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 New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Oxford Economic Papers, Vol. 3, 1975, pp. 1052~1053.

74) T. Ozawa, *Multinationalism, Japanese Style*, op. cit., p. 87.

75) Chung H. Lee, U. S. and Japanese D. F. I. in Korea : A Comparative Study, op. cit., p. 720.

V. 結 言

1.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의 綜合的 評價

지금까지 논의한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은 既存의 海外直接投資理論을 適用 또는 擴張하여 이를 설명하려는 微視的·經營學的 접근과 開發途上國의 獨自的인 海外直接投資理論이 필요하다는 巨視的·經濟學的 접근이론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이節에서는 이러한 諸理論을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의 理論的 課題에 대한 說明力의 観点에서 아래의 (表 V-1)을 통하여 評價하기로 한다.

(表 V-1)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에 관한 諸理論의 說明力 比較

理論的 課題 諸理論	分析의 관 點	實 質 的 優 位 (Why)	投資 的 選 擇 (How)	立 地 的 選 擇 (Where)	現實 的 行 態 (逆投資여부)	規 範 的 문 제
折衷理論	微視+ 巨視	○	○	○	△	×
製品壽命週期理論	微視+ 巨視	○	△	△	×	△
順位理論	微 視	○	△	○	×	△
Giddy & Young 主張	微 視	○	△	○	△	×
Kojima巨視 經濟理論	巨 視	×	△	○	×	○
Ozawa理論	巨 視	×	△	△	×	△

註: 1) 이러한 평가는 상당히 主觀的임.

2) ○: 잘 설명함, △: 部分的·間接的 설명력 있음, ×: 설명력이 희박함.

위의 說明力比較表를 중심으로 이론적 과제의 観点에서 諸理論을 要約하여 평가하면 첫째, 현재까지의 理論水準으로서는 開發途上國의 海外直接投資를 설명해야 될 理論的 課題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理論은 아직 없다.

둘째, 海外直接投資의 決定因 분석의 측면에서는 微視的·經營學的 접근이 더 有用하며 특히 던닝의 折衷理論이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의 決定因 分析理論으로서는 가장

說明力이 있는 이론이라 하겠으나 반면에 海外直接投資의 規範的 問題의 측면에서는 巨視的·經濟學的 접근방법이 더 有用하다고 하겠다.

세째, 현재의 理論水準으로서는 開途國 海外直接投資의 現實的 行態의 측면에서 先發 開途國의 對後發開途國 投資現象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으나 開途國에서 先進國으로의 逆投資現象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限界가 있다.

이상의 諸理論의 설명력의 차이점은 巨視的 觀點인가 微視的 觀點인가에 달려 있으므로 크게 두가지 접근이론으로 나누었을때 이들 접근 방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表 V-2 참조).

(表 V - 2) 開途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의 微視的·巨視的 比較

	微視的·經營學的 接近理論	巨視的·經濟學的 接近理論
理論的 性格	(1) 個別 企業經營學的 觀點에서 기업특유적·소유권특유적 優位 강조 (2) 개별기업적·企業內部的 요인을 중시하여 海外直接投資 설명 (3) 미시경제학 및 經營학적 접근 (4) 市場의 不完全性에서 기업 優位의 원천을 추구	(1) 國民經濟的 觀點에서 國家 特有的·立地特有的 優位 強調 (2) 환경적·企業外部的인 거시적요인을 중시하여 海外直接投資 설명 (3) 거시경제학적 접근 (4) 市場의 完全성을 重視
理論的 說明力	(5) 實質的 優位の 源泉 설명을 重視함 (6) 決定因 분석에 치중하여 직접투자의 규범적 문제에 대한 說明력이 부족함	(5) 실질적 優위의 원천 설명이 부족함 (6) 決定因의 說明보다는 立地問題와 직접투자의 규범적 문제에 대한 說明력 있음

결국 두가지 接近方法은 각기 다른 문제를 설명하려는 分析視角의 差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즉 微視的·經營學的 접근이론들은 直接投資흐름의 構造를 決定하는 企業特有的 要素를 규명하려고 시도하는데 反해 巨視的·經濟學的 接近 理論은 한 국가의 直接

投資의 原因과 形態 및 規範的 側面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수 이다

說明力이 있는 이론이라 하겠으나 반면에 海外直接投資의 規範的 問題의 측면에서는 巨視的·經濟學的 접근방법이 더 有用하다고 하겠다.

세째, 현재의 理論水準으로서는 開途國 海外直接投資의 現實的 行態의 측면에서 先發 開途國의 對後發開途國 投資現象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으나 開途國에서 先進國으로의 逆投資現象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限界가 있다.

이상의 諸理論의 說明력의 차이점은 巨視的 觀點인가 微視的 觀點인가에 달려 있으므로 크게 두가지 접근이론으로 나누었을때 이들 접근, 방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表 V - 2 참조).

(表 V - 2) 開途國 海外直接投資理論의 微視的·巨視的 比較

	微視的·經營學的 接近理論	巨視的·經濟學的 接近理論
理論的 性格	(1) 個別 企業經營學的 觀點에서 기업특유적·소유권특유적 優位 강조 (2) 개별기업적·企業內部的 요인을 중시하여 海外直接投資 說明 (3) 미시경제학 및 경영학적 접근 (4) 市場의 不完全性에서 기업 優위 의 원천을 추구	(1) 國民經濟的 觀點에서 國家 特有 的·立地特有的 優位 強調 (2) 環境적·企業外部的인 거시적요 인을 중시하여 海外直接投資 說明 (3) 거시경제학적 접근 (4) 市場의 完全성을 重視
理論的 說明力	(5) 實質的 優位の 源泉 說明을 重視함 (6) 決定因 분석에 치중하여 직접투 자의 규범적 문제에 대한 說明력이 부족함	(5) 실질적 優위의 원천 說明이 부 족함 (6) 決定因의 說明보다는 立地問題 와 직접투자의 규범적 문제에 대한 說明력 있음

결국 두가지 接近方法은 각기 다른 문제를 설명하려는 分析視角의 差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즉 微視的·經營學的 접근이론들은 直接投資흐름의 構造를 決定하는 企業特 有的 要素를 규명하려고 시도하는데 反해 巨視的·經濟學的 接近 理論은 한 國家의 直接 投資의 原因과 形態 및 規範的 側面을 說明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각각의 海外直接投資理論들이 제각기 서로 다른 이론적 視角과 內容으로서 多樣하게 展開되어 왔으며 각 이론들은 모두 海外直接投資의 어느 一

面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어떤 이론도 開發國 海外直接投資의 모든 特性和 海外直接投資理論이 해명해야 할 諸理論的 과제를 동시에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開發國 海外直接投資에 관한 연구가 그 규모면에서 아직 미미하고 역사가 日淺하여 현재로서는 많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도 부분적으로는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도, 또한 어떠한 이론이든지 그 이론이 가지는 基本的 視角이 어떠한지 基本的으로 강조하는 측면이 무엇이나에 따라 나름대로의 이론들은 그 성격상 代替的이라기 보다는 相互補完的인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이론을 評價함에 있어서도 특정의 어떤 이론이 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못하느냐 하는 시각보다는 어떠한 이론이 어떠한 점에서 보다 有用하고 價値있는 설명력을 가지느냐 하는 補完的 觀點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의 이론적 水準下에서는 기업이 왜 直接投資하는가 하는 海外直接投資의 決定因 分析은 미시적·경영학적 접근, 특히 鄧寧의 折衷理論이, 海外直接投資의 규범적측면에서는 거시적·경제학적 접근이론이 有用하므로 相互補完的 視角에서 開發國의 海外直接投資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統合的 理論의 必要性和 展望

상술한 바와 같이 現存하는 이론들이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의 決定因과 현실적 行態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부분적 說明力만을 가지므로 開發國 海外直接投資의 이론적인 諸課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어떤 統一的이면서도 包括的인 一般理論의 體系定立이 강하게 요청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오늘날 多國籍企業과 海外直接投資의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國際經濟學은 그 고유의 國際貿易理論이나 國際資本移動論의 기초 위에서 產業組織論·寡占的 競爭論·企業理論의 視角을 통합함으로써 微視的·經營學的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國際經營學 또한 그 고유의 경영학적 문제에 대한 보다 적절한 視角을 얻기 위해 미시경제학적·산업조직론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때로는 國際經濟學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결국 경제학적·거시적 시각을 統合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 이내에서는 이 兩者의 학문적 영역이 重複 내지 不明確해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海外直接投資라는 實體 그 自體가 本質上 企業이라는 주체적 요인과 立地라는 환경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려할 때 결국 開發途上國 海外直接投資의 統合的 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巨視的·國民經濟的·經濟學的 觀點과 微視的·企

業經營學的 觀點을 어떻게 통합하고 調和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현재의 단계로서 통합이론의 방향은 결국 ① 微視的 基礎 위에 巨視的 觀點을 定立시키는 방향의 통합과 ② 巨視的 이론체계속에 미시적 요인을 內包시키는 방향으로 통합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방법에 대한 구체적 제시는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理論보다도 상대적으로 연구의 역사가 깊은 先進國 海外直接投資理論에서조차 아직 이렇다 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開途國의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統合理論의 必要性 認識과 방향제시는 有意味하다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盧宅煥, 多國籍企業의 海外直接投資理論에 관한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7.
- 閔相基, 韓國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 韓國經營論, 한울, 1985.
- 閔相訓,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1984.
- 徐根太, 國際經濟學, 經世院, 1986.
- 玉璿鍾, 多國籍企業經營論, 法文社, 1982.
- 元鍾根, 韓國家電產業의 對美直接投資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6.
- 崔宗洙, 海外直接投資理論의 體系的 分類試論, 論文集, 貿易學研究會, 1987.
- _____, 折衷理論의 背景과 說明限界에 관한 考察, 論文集, 韓國海洋大學, 1988.
- 江夏健一, 多國籍企業要論, 文眞堂, 1984.
- 小島清, 世界貿易と多國籍企業, 創文社, 1973.
- _____, 多國籍企業의 直接投資, 다이아몬드社, 1981.
- _____,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文眞堂, 1985.
- 小田正雄, 國際貿易と直接投資, 新評論版, 1975, 6.
- _____, 多國籍企業理論의 考察, 世界經濟評論, 1979, 7.
- 赤松要, 金廢貨と國際經濟, 東洋經濟新報社, 1974.
- _____, 海外投資と雁行形態, 世界經濟評論, 1975, 2.
- Arndt, H. W., Professor Kojima on the Macroeconomic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June 1974.
- Buckley, P. J., New Theories of International Business : Some Unresolved Issues, in Mark Casson(ed.), The Growth of International Business, London, 1982.
- Buckley, P. J. and Casson, M., The Economic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 Selected Papers, Macmillan, 1985.
- Busjeet V., Foreign Investment from LD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Business School, 1980.

- Choi, Jong Soo, An Analy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Korea Maritime University, Dec., 1986.
- Dunning, J. H., Explaining Chang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Production : In Defence of the Eclectic Theor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v., 1970.
- _____, Explaining Chang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Production : In Support of the Eclectic Theor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 Statistics, Nov., 1980.
- _____,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Position of Countries : Towards a Dynamic or Development Approach, Weltwirtschaftliche Archiv, Vol. 117, 1981.
- _____,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George Allen & Unwin, 1981.
- _____, Toward o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 Some Empirical Tes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pring/Summer, 1980.
- Geroski, P. A., Book Review, Economic Journal, Mar., 1979.
- Giddy, I. H., The Demise of the Product Life Cycle Model in International Business Theory,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Spring, 1978.
- Giddy, I. H. & Young, S., Conventional Theory and Unconventional Multinationals, in A. M. Rugman(ed.), New Theories of the Multiantional Enterprise, Croom-Helm, London & Canberra, 1982.
- Gray, H. P., Macro Economic Theor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An Assessment, in A. M. Rugman(ed.), New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Croom-Helm, London & Canberra, 1982.
- Hill, H. and Johns, B., The Role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East Asian Countri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21, Heft 2, 1985.
- Hishinuma, S., A Model of Japanese Direct Foreign Investment, 産業經營研究, 日本經濟研究所, 1984.
- Hood, N. and Young, S., The Economic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87.
- Hufbauer, G. C., Synthetic Materials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 Univ. Press, 1966.
- Jun, Y. W., *The Internalization Process of the Firm : The case of the Korean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Sloan School of Management, MIT, 1985.
- Knickerbocker, F. T., *Oligopolistic Rea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Harvard Business School, 1973.
- Kojima, K., *A Macroeconomic Approach to Direct Foreign Investment*,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June, 1973.
- _____, *Direct Foreign Investment : A Japanese Model of Multinational Business Corporations*, London, Croom-Helm, 1978.
- _____, *Macro Economic Versus International Business Approach to Direct Foreign Investment*,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June, 1982.
- Kojima, K. & Ozawa, T., *Japan's General Trading Companies*, OECD, 1984.
- _____, *Micro and Macro-Economic Model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 Toward Synthesis*,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No. 25, 1984.
- Lall, S., *Monopolistic Advantages and Foreign Investment by U. S. Manufacturing Industry*, Oxford Economic Papers, Vol. 30, Mar., 1980.
- _____, *The New Multinationals : The Spread of Third World Enterpris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83.
- Lecraw, D., *Direct Investment by Firms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Oxford Economic Papers, Nov., 1977.
- _____, *Internalization of Firms from LDCs : Evidence from the ASEAN Region*, in K. Kumar et al.,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 Lee, Chung H., *On Japanese Macroeconomic Theorie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31, No. 4, July, 1984.
- Lee, C. H. & Naya, S., *Trade and Investment Patterns in the Asian NICs(Preliminary)*, January, 1983.
- Ozawa, T.,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 New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Oxford Economic Papers, Vol. 3,

- 1979.
- _____, *Multinationalism, Japanese Style*, Princeton Univ. Press, 1979.
- Panglaykim, J., *Japanese and ASEAN : A Look at the Direct Foreign Investment Patterns and Its Relations with Trade*, KDI, 1983.
- Pyun, Chong Soo, *Japanese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Deloping Countires : An Analysis and Extension of the Kojima Hypothesis*, 國際韓國人經濟學者學術大會 論文集(IV), 韓國經濟學會, 1984.
- Rapp, W. V., *A Theory of Changing Trade Patterns Under Economic Growth : Tested for Japan*, Yale Economic Essay, Fall, 1967.
- Roemer, J. E., *US-Japanese Competition in International Markets : A Survey of the Trade-Investment Cycle in Modern Capitalism*, Research Series, No. 22, Buckley, 1975.
- Root, F. R.,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5th ed., Cincinnati, Ohio, Southwestern Pub, Co., 1984.
- Sekiguchi, S. and Krause, L. B.,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ASEAN by Japanese and the United States*, R., Garnant(ed.), *Asian in a Changing Pacific and World Economy*, Australian National Univ., 1980.
- Taylor, M. and Thrift, W., *Multinationals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Economy*, London, Croom-Helm, 1986.
- Tsurumi, Y., *R & D Factor and Exports of Manufactured Goods of Japan*, Unpublished D. B. A. Thesis, Harvard Univ.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969.
- _____, *The Japanese are Coming*, Cambridge, Mass., Ballinger, 1976.
- Vernon, R., *International Inver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Life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66.
- _____, *The Product Life Cycle Hypothesis in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v., 1979.
- Wells, Jr., L. R., *Foreign Investors from Third World*, in K. Kumar, & M. G. Mcleod(ed.), *Multinationals from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Books, 1981.

_____, The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T. Agman, and
C. P. Kindleberger(eds.), Multinationals from Small Countries, The MIT Press,
Cambridge, 1979.

Yoshino. M. Y., Japanese Multinational Enterprise,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76.

